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른 곳에서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열악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11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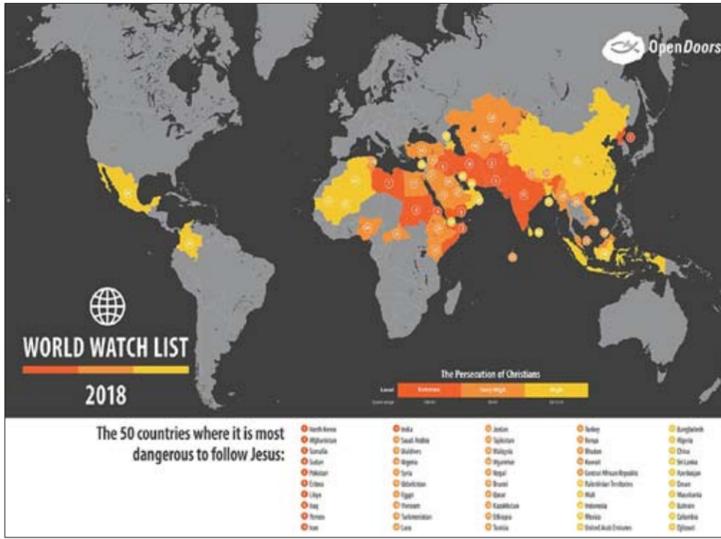
주후 2018년 1월 20일 (토) 제 166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북한, 17년 연속 세계 최악 기독교박해국

오픈도어선교회 '기독교 박해순위 2018' 발표, '이슬람극단주의' 가 주요 원인 제기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OpenDoorsUSA.org)는 최근 '2018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WWL-World Watch List)' 50개국을 공개했다(2018 WORLD WATCH LIST:THE 50 COUNTRIES WHERE IT IS MOST DANGEROUS TO FOLLOW JESUS). WWL에 따르면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북한으로 조사됐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 내 기독교 신자들은 지하에 갇혀 있으며 가족끼리도 서로의 신앙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

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은 1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북한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겪는 어려움을 평가하는 '박해압력' 지수에서 개인영역, 가족영역, 공동체영역, 국가영역, 교회영역 등 다섯 가지 영역 모두 최고점(극심함)을 받았다. 또한 살해, 투옥, 납치, 강간 및 성적 학대, 교회나 집, 재산, 사업체에 대한 공격 등을 포함하는 '폭력' 지수 역시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스도인들마다 1명꼴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아시아에서 3.5명의 그리스도인들마다 1명꼴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남미에서는 30명마다 1명꼴로 자신의 믿음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남미에서 세계에서(유럽과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아주)는 75,000명마다 1명이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정도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박해지수 90점이 넘는 국가가 단 한 곳뿐이었던 2014년 순위와는 달리 올해는 북한(94점), 아프가니스탄(93점), 소말리아(91점) 등 세 곳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경우 박해지수가 몇 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다른 국가들의 박해 정도가 극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기부하는 사람들의 DNA 찾았다!

컨버세이션, 세아 콘래스/페미다 핸디 교수 연구, 자선 봉사 기부활동 5가지 이유 밝혀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가? 거의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누구나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종종 얼굴도 못 본 사람을 도우려고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미국 가구의 55.5%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각각 심리학과 경제학 분야 기부 관련 문제 전문가로서(세아 콘래스는 인디애나-퍼듀대학 자선학 조교수, 페미다 핸디는 펜실베이니아대학 사회정책·관행 대학원 사회정책학 교수) 사람들이 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지, 다시 말해 기부 욕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고자 했다(5 reasons why people give their money away - plus 1 why they don't).

요청의 힘
이 문제를 조사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6년 전 네덜란드 학자

풀리지 않는다.
대부분 불우한 이웃에 대한 동정을 포함해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단체에 기부한다. 또한 자신들의 기

이타심, 신뢰, 인간관계, 이기주의, 세금혜택... 제약요인으로는 경제사정 꼽혀

레네 베커스와 파말라 비에프킹이 이 주제에 관한 논문 500건을 토대로 기부를 유도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자선단체 기부의 85% 이상이 누군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부를 요청한 자선단체들 중에서 후원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부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할 때 참여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베커스와 비에프킹의 조사에선 사람들이 동정심만으로 기부하지는 않았다. 기부의 비용과 혜택, 선행의 만족감과 선행한 이미지도 고려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문화칼럼 김기원 목사



7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6면

세계기독교인연합회 독후감... 박보라 집사

월드미션대학교 수료증 과정

2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12주 코스

WMU 상담 교실 II

"성경적 돌봄과 상담 기술"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People Helper의 역할과 기독교 공동체 내 자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상담 워크숍입니다.



PROFESSOR

Kim, Hyun Kyung

월드미션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 학사 디렉터 ANC 은누리교회 내직지유 사역자 (상담 사역자) Talbot 기독교 교육학 박사 (Ph.D.) Talbot 목회 상담학 석사 (M.A.)

2018. 2. 12 부터 | 매주 월요일 | 10:00 am - 12: 30 pm | 608호 강의실 | 등록비 \$100

2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10주 코스

WMU 바이블 아카데미

"기초 성경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읽고 싶은 평신도, 신학생, 목회자를 대상으로 히브리어의 핵심원리와 맥을 잡아 드림으로써,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PROFESSOR

Nam, Jong Sung

월드미션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 디렉터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 (Ph.D.)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학석사 (Th.M.) 서울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M.Div.)

2018. 2. 5 부터 | 매주 월요일 | 10:00 am - 12: 00 pm | 501호 강의실 | 등록비: \$100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WMU 수료증 취득 및 월드미션대학교 진학 시 학점 인정

1.213.388.1000

대형교회 따라하기-위험할 수 있다!

처치리더스.컴, 캐리 니호프 목사의 대형교회 유명 프로그램 잘 따라하기 노하우 제시

누군가 당신에게 오늘날 교회에서 당신이 따르는 사람이 있는냐고 물으면, 아마도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의 교회 리더들의 이름이나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기관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따른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과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들에 하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많은 대형 교회 사역자 들을 깊이 존경한다. "모든 대형 교회는 00다" 라고 쉽게 말하는 비평가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조사를 해보지 않은 것이다.

나는 또한 기업이나 교회, 사역자들의 생각 등등 배울만한 여든가

로 부터 나온 선진 사례를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에 크게 동의하는 편이다. 결국, 사람은 혼자서 배울 수 없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사실, 필자(Carey Nieuwhof)가 섬기고 있는 교회(Connexus Church)는 대형교회 전략 협력처다. 다양한 많은 통찰력과 전략들을 노스포인트(North Point)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렸고, 직접 받아들였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었고, 캐나다에서조차도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러면 왜 이 글을 쓰는가? 선진 사례를 받아들이는 것과 단순히 베끼는 것과는 180도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점을 이제 살펴볼 것이다(5 Reasons You Shouldn't Copy a Mega-Church).

단순히 대형 교회 따라하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단순히 대형교회를 베끼면 안 되는 걸까?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5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인데, 이는 감탄스러운 대형교회의 사례를 더 잘 채택할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대형교회와의 협력) 덕분에, 필자는 수



복갈지 않다. 경우 차량에 휘발유를 넣으면 가지 못한다. 둘 다 기름이지만 똑같지 않다. 이와 같이 연구한 모든 교회가 교회지만 똑같지 않다.

자신의 교회에 맞는 체계가 필요하다. 일단 교회들의 구성 요소와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자신이 있는 교회의 체계에 딱 맞는 구성 요소를 발견한 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교회 체계에 딱 맞는 구성요소 발견한 후 받아들여 상황을 변명하지 말고 차이점을 실패 구실로 사용 말아야

년 동안 대형교회와 여러 출처를 통해 엄청난 것을 배워왔다. 교회를 바꾸기도 했고,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 여기서 교회를 바꾸었다는 것은, 세 군데의 작은 중심 교회를 하나로 합쳐 8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키운 일이고, 교회 개척은, 매주 현재 천백 명이 출석하는 개척 교회를 세운 일을 얘기한다.

그러나 단순히 좋아하는 사역자의 방식이나 좋아하는 기관의 방식을 베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1. 여러 사례를 섞는 경우

전환적으로 인터넷을 쓰던 시대에도, 다른 교회의 사례를 살펴 보면 이들이 있었다. 필자는 90년대 교회 사역자로 초반에 일할 때 새들백(Saddleback)교회와 윌로우크릭(Willow Creek)교회를 보면서 경험을 쌓았다. 당시 1999년에 총회에 참석했다가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James Emery White)를 만났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는 우리가 있는 작은 세 교회에 변화가 있는지 물었고, 이에 윌로우크릭과 새들백에서 선진 사례를 받아들여 취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 때 들은 말을 잊을 수 없다. "그 교회를 다 알 수 없어요. 그 교회를 서로 맞지 않아요. 같이 않다고요. 그 교회를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그가 한 말이 정답이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연구했다.

노스포인트, 라이프처치(LifeChurch), 엘러베이션(Elevation), 뉴스프링(NewSpring) 같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같지만 목회 방향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 소그룹, 어린이 사역, 인물 구성, 공동체 진출 방법, 프로그램 등이 다르다.

교회를 연구할 때는 그 차이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채택했던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나이키(NIKE) 운동화를 사려고 했는데 나이스(NICE) 운동화를 사게 되는 것처럼, 독창적이라고 생각했던 일과는 달리 낱종된 사례를 시행하게 될 수도 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맞지 않는 여러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는 경우

3.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경우

이 문제는 큰 문제다. 회의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블로그를 찾아보고 사역자를 따르고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빌리기는 이전보다 더 쉬워졌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여러 불특정의 사역자들로부터 빌린 아이디어는 격전 끝에 얻은 아이디어였다. 사역자들은 아이디어를 개선시키고, 수정하고, 다시 바꾸고, 다시 달려들어 최종적으로 도출돼 보기 좋게 된 것이다. 여러 부분이 모여서 보기 좋게 도출된 것이다. 이를 노력으로 얻었다.

둘째, 분명, 같은 수준으로 그 아이디어를 얻지 못했다. (3면으로 계속)

이 문제는 큰 문제다. 회의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블로그를 찾아보고 사역자를 따르고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빌리기는 이전보다 더 쉬워졌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여러 불특정의 사역자들로부터 빌린 아이디어는 격전 끝에 얻은 아이디어였다. 사역자들은 아이디어를 개선시키고, 수정하고, 다시 바꾸고, 다시 달려들어 최종적으로 도출돼 보기 좋게 된 것이다. 여러 부분이 모여서 보기 좋게 도출된 것이다. 이를 노력으로 얻었다.

둘째, 분명, 같은 수준으로 그 아이디어를 얻지 못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새해결심-나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최해근 목사 (풍고메리교회)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새해결심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새해결심 중 하나는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흔히 새해에는 체중을 줄여 날씬하고 건강미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매일 혹은 매주 일정한 시간을 내어 운동하는데 투자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건강에 이어 많은 사람들이 새해결심을 하는 영역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혹은 '새해에는 삶을 더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겠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양질의 시간을 갖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 중에서 대략 8% 정도만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해결심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새해에 결심할 내용들을 작성할 때,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힘들고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으로 순서를 세웁니다. 작고 쉬운 행동이나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하게 되면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박혀있는 오래된 나쁜 습관을 단순히 없애려고 결심을 합니다만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긴 세월을 두고 몸에 쌓인 습관이 그렇게 쉽게 우리 결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며칠간 씌름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포기한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오히려 결심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태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해결심을 하기 보다는 비교적 쉽고 몸에 베이지 않은 간단한 것부터 시도하여 성공한 후 점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나옵니다.

둘째, 새해 결심한 내용들을 가족이나 주변의 친근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혼자만 결심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어 이야기하는 훨씬 더 무게가 있고 헌신의 마음을 불러오게 합니다. 새해결심 내용에 따라 어떤 것들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도움과 응원이 있을 때 훨씬 더 이루어 내기가 용이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응원을 받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격려를 얻을 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새해결심에 대해 가족들 혹은 부부간에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제목으로 나누고 격려할 때 결심한 내용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셋째, 결심한 내용들을 이루었을 때 충분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시간은 혼자서 갖기보다는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예컨대 가족들과 함께 가질 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새해 결심한 내용을 이루었을 때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인정해주고 사기를 돋아주게 되면 행동을 바르게 교정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아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찾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정만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새해결심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 혹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로 중독된 사람이 무조건 독한 마음 하나로 자신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그런 사고 자체가 구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 꼭 바꾸어야 할 습관이나 언행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독한 마음만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 결과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새해결심은 나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히려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움과 수단을 통해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새해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10배 이상 자신들의 행동교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설령 결심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결심하고 시도하며 나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번에 자신이 한 모든 결심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들도 내가 겪고 있는 새해결심과 실패를 함께 맞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시도해 나가며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바꾸어 가는 자세입니다. 2018년 한 해, 새해결심이 내 인격과 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thechoi82@yahoo.com

<p>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데 폰) (323) 665-9025(광고국) Fax: (323) 665-0056(편집국) (323) 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대표) (718) 886-4424(편집국) Fax: (718) 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M.Div 신학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DM 음악 박사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항공학과 특징 ●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주년을 맞는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북한, 17년 연속 세계 최악 기독교박해국

(1면에서 계속)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대부분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동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이슬람 국가(IS)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무슬림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지난해에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잇따랐다.

오픈도어선교회는 "IS가 중동에

서 약화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힘을 잃고 있는 추세지만 그들의 사상적 영향력은 여전히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한 IS세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이슬람 극단화와 이슬람 팽창주의의 동시적 발생도 기독교 방해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현재 북부 12개주에서 법적절차 없이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이 선포됐다. 지방정부들과 사회단체는 크리스천들이 신앙대로 살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극단적 민족주의가 기독교 박해의 원인이 되는 사례도 있다. 올해 박해 순위에서 2위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올해 총선을 앞두고 부족적인 단합과 단결을 중요시하면서 이타자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가적으로도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면서 개종자를 배신자로 몰며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단숨에 25위로 올라선 네팔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네팔에서는 종교적 민족주의가 급격하게 대두되면서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의 크리스천에 대한 압력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기를 거론했다.

(금전적) 제약 (Financial constraints): 다섯 가지 동기유발 요인에 덧붙여 우리는 사람들이 기부를 망설이는 한 가지 이유를 찾아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할 때 기부자들은 이타심을 첫째 요인으로 꼽으며 세금공제 같은 이득보다 그것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할 수 있다. 기부자가 보편적으로 꼽은 유일한 걸림돌은 금전적 제약이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기부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지보다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지에 더 많이 이끌리는 듯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더 큰 규모의 연구에서도 이 같은 패턴이 나타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우리 피험자들에게는 성별·연령·인종·민족 면에서 미국의 인구 구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예컨대 여성 자원자가 남성보다 많이 성별 균형이 맞았을 때보다 더 이타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온갖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미국인이 어떤 동기에서 기부할 하는지 모른다. 장차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 나갈 계획이다. 우리 웹사이트(tinyurl.com/motives2donate)의 기부동기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우리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과 자신의 동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다. "다른 데서 잘됐으니까"라는 말은 고려해볼 만큼의 확실한 답이 아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답이 확실치 않다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4. 자신의 체계는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 경우

(4면으로 계속)

기부하는 사람들의 DNA 찾았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사람들의 기부 동기를 측정할 방법은 많지 않다. 우리 리서치에 기부한 이유를 수천 명의 기부자에게 묻는 동안 그저 누군가에게서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놓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그들은 대신 내적인 동기를 거론한다. 사람들은 종종 노숙자를 보면 안쓰럽다거나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등의 이유를 꼽는다. 그런 까닭에 그냥 기부 이유를 직접 묻는 게 최선이라고 믿는다.

기부를 나타내는 'TASTE'

비영리·자원봉사 분야 학술지(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에 곧 실릴 기사에 자세히 소개된 연구에서 우리는 과거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다고 밝힌 미국인 819명을 모집했다. 그들은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껴 기부한다' 등 사람들이 제시하는 갖가지 이유에 관한 54가지 서술이 포함된 구체적인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했다. 우리는 과거의 리서치를 토대로 이 설문서를 작성했다. 거기에 피험자들이 공감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했다.

이런 초기 반응에서 관측한 패턴을 토대로 54건의 서술 중 기부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를 측정하는 6개 항목 18가지로 추렸다. 그런 식으로 기부동기 척도를 만들어냈다. 기부의 다섯 가지 주요 동기와 한 가지 보편적인 걸림돌에 초점을 맞춘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타심, 신뢰, 인간관계, (금전적) 제약, 이기주의,

세금이다. ATSCET라는 두문자어의 순서를 기억하기 쉽게 바꿔 'TASTE for Charity'로 부르기로 했다.

신뢰(Trust): 기부한 돈으로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믿는 단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타심(Altruism): 기부자는 불우 이웃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이 자원봉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질 클레어리, 마크 스나이더와 그 동료 등 다른 학자들의 앞선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인간관계(Social): 많은 기부자는 자신들이 알고 관심을 갖는 누군가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많은 부부가 종종 함께 자선기부 결정을 내린다. 주변에 병을 앓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런 질병 연구를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가능성이 크다. 또는 자신이 지원하는 자선단체의 모금행사에 친구를 초청하거나 직접적으로 기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수백만 명의 걸스카웃이 쿠키를 손에 들고 동네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는 식이다.

세금(Taxes): 많은 사람이 자선단체 기부의 대가로 받는 세금공제 혜택도 또 다른 동기유발 요인이다.

이기주의(Egoism): 선행의 만족감 또는 선량한 이미지 같은 일부 사회적 혜택을 누리려 기부할 때다. 우리 조사의 응답자들도 이 같은 동

(2면에서 계속) 얻는다 해도 그 교회에서 얻은 아이디어처럼 효과적으로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나? 물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우선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그 아이디어와 씨름해야 한다. △처음에 있었던 법칙들로 돌아

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 △증명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이 아이디어는 내 것이 되었다.

종종 잘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도용하지만 왜 이게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면 보통 대답조차 할 수 없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새해 세 가지 각오

좋은 각오는 좋은 인생을 만들고, 각오 없이 사는 인생과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 각오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자와 그냥 달려가는 자와는 필연코 다르듯이, 각오하고 사는 자와 그냥 사는 자는 분명히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을 지내면서 오만가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기도로 신음하기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가오는 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새해를 성전에서 감사와 영신예배 2천 가족 대표기도로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의 삶에는 영적인 각오 못지않게 육적인 욕망 사이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중 가장 힘든 세 가지입니다.

1) 계속 손해 보며 살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사랑 실천의 삶은 "손해보고 사는 것" 이라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최후의 순간까지 손해 보는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되었고,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었고, 의인이 죄인처럼 되었고,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아지셨고, 생명이 죽음 되었고, 축복이 저주 되셨습니다.

성령충만한 초대교회 역시 손해를 보는 삶으로, 사랑이 실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 보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 실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 보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처신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해 보고 사는 삶, 결코 쉬운 선택도 각오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손해 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2) 계속 복음에 미처서 살아야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느 날 기도 굶어서 추위를 견디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 성경 구절은 생각이 나지 않고, 동키호테의 일생에 대하여 정리한 한 구절이 반복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미처서 살다가 제 정신이 돌아올 때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보면 생각나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때 오르는 말씀을 되새기기도 하는데, 그날은 동키호테에 대한 글귀만 반복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나게 하는 안내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증거로 전 삶을 가득 채웠다는 의미이고, 사실 박해자들에게는 미쳤다는 소리도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사명자는 최후의 순간까지 사명에 미처서 뛰고 달려다, 미친 그대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은퇴 후 좀 쉬면서 인생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인지 사방팔방 길은 막히고, 지병에 시달리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과로로 두 번이나 쓰러졌고, 목회, 집회, 선교, 후배양성, 문서선교, 목회 목양 행회, 닥치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손수 만년필로 쓴 300여권의 저서 중 115권이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은 은퇴가 없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무지한 저에게 쇠뇌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제 정신만 돌아오면 하기 싫고 힘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생각으로 점령하기에서 "사명에 미처서 살다가 사명에 미친 그대로 죽어야겠다"는 각오입니다. 그것이 성령충만한 삶의 증거요, 거듭한 자의 최후가 아니겠습니까?

3)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있었지만 인류 구원 완성을 위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진감래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은 이 땅에서 고진감래보다 천국 가서 고진감래를 누리야 합니다. 그것이 순교자들의 길이었고, 선지자들의 생애였고, 제자들, 사도 바울,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들 목사, 사업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딸, 모두 미국 시민권자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명에 최선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30년 신문사 세상 월간지 기고, 27년간 방송, 그중 일본 노숙자 선교 8년 현장 협력과 제자훈련은 기가 막힌 사역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세상 표현으로 꿀떡 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육체인지라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사명의 길에서 15년간 떠나 살면서 목사가 된다고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전과가 있기에, 지금도 내 적성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 되어질 때가 많아, 어떻게 감당했는지 뜨거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각오해도 성령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물거품 각오가 될 것이기에 기도 하고, 또 기도합니다. 각오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kkiwon2002@hanmail.net

필자소개: 현재 군선교 지도목사/(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고문/서울신학원 교수/한국문인협회 수필작가/코스모스문학 명예이사장/성경해석학 외 114권 출판/문서선교 36만권

강사



진재혁 목사 한국 지구촌 교회 담임



정정숙 박사 패밀리 터치 원장



이정애 사모 내리 연합 감리 교회

주관: Family Touch

지구촌교회 GLOBAL MISSION CHURCH

후원: LOVE NEW JERSEY

뉴저지 한인 목사회 뉴저지 사모회 뉴저지 교회

일시: 2월 12일 - 14일 (월-수, 2박3일)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Fort Lee

2117 NJ-4, Fort Lee, NJ 07024

등록비: \$50

등록문의: 패밀리 터치 201.242.4422

2018년 제 3회

사모들의 행복축제

info@familytouchusa.org

familytouchusa.org

240 Grand Ave. Suite 6. Leonia NJ 07605

201.242.4422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걸어야 산다

저의 아버님은 말년에 잘 걷지 못하셨습니다. 양로병원에 들어가실 때까지도 해도 걸어서 차를 타시고 병원이나 식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양로병원에 들어가신 후부터는 간병인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성화를 해도 힘들다며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다. 간혹 바람 쐬러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오셨지만 금세 춥고 영달이가 쭈시고 아프시다며 누우러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과는 대조적으로 어머니는 자주 걸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양로병원에 계실 때 어머니는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

스를 타고 아버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비해 많이 다니시지는 못하시지만, 어머니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마켓, 병원, 은행, 교회 등등... 혼자 못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택시비를 드릴 테니 택시를 타시라고 권해도 어머니는 '다리 하나는 아직도 멀쩡하다. 그나마 이것도 안 걸으면 그때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시며 걸고 또 걸으십니다. 사실 어머니의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몇 번에 걸친 허리수술, 고혈압, 당뇨, 어지럼증, 식욕부진,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수면 장애 등등... 많은 병명을 달고 사시고, 늘 온 몸이 여기저기 쭈시고, 뼈마디가 아프다고 힘들어하시지만, 어머니가 그나마 건강을 유지한 비결은 남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다는 굳건한 의지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걷기'인 것 같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걷는 것이 최고의 약(Walking is man's best medicine)'이라고 했습니다. 2009년 8월 하버드 의대에 의하면 하버드대 졸업생 12,269명의 남성들 중에 일주일에 적어도 9마일씩 걸었던 자는 사망률이 22% 낮아졌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44,452명의 남성들 중에 하루에 적어도 30분씩 걸었던 자는 관상동맥 질환 위험 요소가 18% 낮아졌으며, 여성 간호사 72,488명 중에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씩 걸었던 자들은 심장 사망과 심장 마비의 위험 요소가 35% 그리고 뇌졸중이 34%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규적으로 걷는 것은 생명 연장과 건강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흔히 하루 만보 걷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보 걷기보다 더 중요한 '걷

기'가 있습니다. 에베처럼 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 '하나님'과 걷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 영생을 주는 '영원한 보약'입니다. '걷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조금만 건강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또한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으며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어디에서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걷기'는 정규적으로 계속해야 지속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영적인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찬송가 외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적으로, 그리고 지속해서 해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약 5천보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저의 단기목표는 최소한 하루에 1만 보(약 4마일)씩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의 청지기 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장기목표는 '영원한 보약'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보약'인 '걷기'를 한 걸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갑자기 걸어서 몸이 피곤하고 쭈시더라도, 운동해서 몸이 아픈 것이 운동을 안 해서 아픈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매일 조금씩 육체의 건강을 위해 같이 걸읍시다. 매일 조금씩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분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하루하루를 삽시다. 걸어야 삽니다. 누우면 죽습니다.

푸/른/초/장

이경종 목사
(필라델피아교회)



20세기 영적 지도자인 미국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는 '사람에게 소망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 만사형통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보다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래성 같은 것 같아서 '오히려 무너짐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의롭다 함을 입은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했는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예배의 장소는 성도의 중양을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번제와 희생과 십일조와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우양의 처음 낫은 것들을 가져다가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2주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풀 한포기 물 한 줄기 찾기 힘든 삼막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단련시킨 후 가나안에 들어가 일곱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는 병사에게 총을 맡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잠 된 하나님의 복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축복의 열쇠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을 위해 큰 환난과

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원망과 불평보다 이 연단의 과정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 자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신28:12) 고 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는 작은 일에도 감사, 힘든 일에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조금 궁핍한 때를 만나도 감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 우리 모두가 감사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주의 손으로 주신 놀라

기로 떨어 곡식은 부수는게 아니라 늘 떨어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셔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다 같은 것 같으나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소명과 목적이 달라서 그 방법 또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자식은 맨 날 힘들다며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고 원망 불평도 나오지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성도는 더욱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더라도 원망과 불평보다 이 연단의 과정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인내할 때, "현재의 고난과 연단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삽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민간원력으로는 7월에 해당되고 양력으로는 4월을 아빔월 혹은 낫산월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는 아빔월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1월'로 표기합니다. 이 의미는 한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날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예배요 온 가족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든 이민의 삶에서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신명기 28장 1절-14절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을 찾아보라하면 읍일 것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신앙의 연단을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진 고백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 가운데 귀로 듣기만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런 신앙은 환난의 때가 되면 바람의 나는 것처럼 흩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련을 통한 연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저희 교회 표어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자"로 한 것입니다.

은 은총을 풍성히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며, 기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똑 같이 제물을 드렸지만, 받으신 제사는 아벨의 제물이었습니다. 왜 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연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가지 환난을 만나면 감사함으로 받아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점점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섬기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때

본문 3절 하반절에 "이 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이적과 기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아 듣고, 기억하라'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곳곳에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23절 이하에 보면, 소회향과 대화향이라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비숙한 식물이지만, 파종하는 것과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7절에 "소회향은 작대기로 쪼개고 대화향은 막대

대형교회 따라하기-위험할 수 있다!

(3면에서 계속) 다른 리더나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빌리고 있다면, 결국 크고 잘 짜여진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유능한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은 기초가 불안정한 집에 새 판자를 놓는 일일 수 있다. 좋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손 댈 수 없다. 앤디 스탠리(Andy Stanley)가 이전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설(classic systems talk)'에서 설명했듯이, 그 무엇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좋은 결과의 원동력이 된다.

중종 도출하려고 하는 변화는 크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다. "Lasting Impact" 책에서 설명했듯이, 나쁜 관리 체계나 다른 구조적 장벽은 교회의 성장을 제한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목회자 관리 대부분을 주장하는 목회자는 장기적으로 교회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 모든 변화는 보통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역자들로부터 듣는 말 중 약 99퍼센트는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건 좀 주저하게 된다. 어떻게 사용했을까? 대부분의 교회 사역자들은 상황을 설명이 아닌, 변명으로 쓴다. 교회 사역자로서 확실히 망하고 싶다면 상황을 변명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말이 많기 때문에 변명으로 상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쓰고 싶지만, 이미 이에 대해 여기에 올린 바 있다. 기본은 이렇다. 변명을 대거나 발전할 수 있지만 둘 다 할 수는 없다.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하는 사역자가 쉽게 놓치는 것은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을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것으로 생각해보자.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원래 있던 곳의 흙과 영양분을 옮겨 심는 곳에 있는 흙과 영양분과 잘 섞어야 한다. 모든 나무가 어디서나 잘 자라는 게 아니다. 아자나무는 플로리다에서는 잘 자라지만 알래스카에서 잘 자라지 못한다. 아이디어의 기본 상황을 연구해야 한다. △상황이 경영 문제인가? △교회 성장 지대(Bible Belt: 미국 남-중부의 근부주의가 신봉되고 있는 지대-역주)에 있는가 아니면 비신자들이 많은 지대에 있는가? △교회가 지방에 있다, 도시에 있다? △기관이 인종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교회

가 교회 개척인가, 기존에 있던 교회인가? △연구하고 있는 리더와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공책을 꺼내 적고 단순히 그곳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 대조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아이디어와 선전 사례의 이유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전부 수용하면 그 사례나 아이디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성공한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잘 되지 않을 구실로 써서는 안 된다. 그 구실을 다시 써서 잘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라. 실패한 리더는 잘 실행되지 않는 백만 가지 이유를 낸다. 성공한 리더는 잘 실행될 이유 한 가지를 찾는다. 성공한 리더가 돼라. 모든 선전 사례와 아이디어를 빌려야 한다.

그래서 요지는 무엇인가? 도움을 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선전 사례와 아이디어를 빌려라. 특히 성공한 기관과 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해라. 그리고 다음 사항을 잊지 말라. △연구하고 있는 교회를 이해해야 한다. △전략의 모든 구성 요소는 빠짐 없이 잘 맞아야 한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상황을 새로운 아이디어가 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 조언은 여기까지다!

5. 상황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

지나온 한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열어 가는데, 주님께서 인생을 추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다. 옛날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온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미래를 열어보라는 말씀이다.

찬찬히 과거를 추억 어떤 이들은 인생의 지나간 시간들의 허무함에 매여 소망의 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올 때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가까이 살아계시고 사랑을 주셨던 이가 돌아가셨다. 얼마 전까지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받은 것밖에 기억을 못한다. 자기가 그렇게 많이 주었어도 받은 것만 기억한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인생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마귀가 은혜를 빼앗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인도해주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 나쁜 독사나 동물이 울까봐 날개를 나풀거리면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다.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은혜가 단비와 같이 축복이 심령을 적시줄 것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

나오지 못하게 함은 철저한 마귀의 수단이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새해를 지나면서 한 해 동안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사라질 것이다. 은혜를 찾고 구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문제를 지나면, 은혜가운데 지날 수만 있다면 축복이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이다.

알래스카에 가면 앵커리지에서 볼스웨이라는 곳까지 도로가 뚫어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알래스카 산맥을 지나가서 넘어가는 도로를 뚫은 이야기이다. 거기에서는 살을 밖으로 내어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사들이 몇 개 시작을 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왜냐하면, 장비가 얼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너무도 간단하게 일꾼이 말했다. '터널을 뚫으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추운

바꾸어주는 것이다. 매는 내 방향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일 뿐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보신다. 아버지가 나를 치실 때, 잘못했다고 옆드려야 한다. 그런데 반항하고 나오면 매가 동물이로 바뀐다. 거기다가 문을 차고 나가면서 소리 지르면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다. 아버지가 야단칠 때 자식이 옆드려지면, 아버지는 그 자식한테 너무 미안하고 사랑스러워진다.

성도들을 야단칠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본다. 좋은 자식은 야단을 맞은 후에 즉시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못된 놈은 인상을 쓰면서 일주일이나 지나도 풀아가지도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보다 더 한 일이 벌어질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옛것을 기억하며, 새것을 열어가는 삶의 지혜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은혜의 감사와 소망

누워계신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재가 되어 작은 함아리에 담겨진다고 할 때,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인생이 뭐냐는 것을 알고 하기 전에 인생을 알려면 과거를 먼저 찬찬히 돌아보아야 한다. 온통 은혜 투성이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계시를 본다. 인생자체만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다. 조금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빛나간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보게 된다. 내가 붙든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뭐가 이론 것 같은데, 실은 세월의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사람은 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받은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준 것만 기억한다. 그리고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좋은 사람은 그렇기에 늘 은혜와 감사가 항상 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언제나 "내가 잘해 주었는데, 너는 내게 해준 것이 없느냐?"는 것이다.

게 받은 은혜를 잘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늘 이 질문 앞에 성실한 답변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복된 지혜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것은 받는 것에 연속된 사람이 있고, 주는 것에 연속된 사람이 있고, 받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고난을 넘어서는 지혜 지나간 일들 가운데 나타난 은혜의 중심에 깊은 절망과 고난이 함께 배어 있음을 본다. 그런데 그 고난이 또한 은혜를 강화시켰음을 고백한다. 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들이다. 실제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토록 소원하던 여인을 만나 결혼하면 언제나 행복할까? 아니다. 결혼하면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를 보게 된다. 자식을 낳으면 역시 그의 몫의 문제를 갖고 사는 것을 본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만다.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을 보아야 하고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헤어

계절에는 터널을 뚫고, 날이 풀어지면 지상의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를 뚫었다는 것이다. 그 후에, 미국에서는 그 회사를 인정하고 일을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문제를 뛰어 넘어가면 축복이 된다. 욕기서를 보면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동시에 함께 온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 방향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방향을 보는 것이 절대인 해임을 고백한다. 문제가 생기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향을 요구하시는구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방향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문제가 방향이 틀렸다는 신호구나. 방향을 틀지 않으면 목적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치시며 인도해 가신다. 양을 친다고 해서 양이 죽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향을

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갈 것인가를 보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힘을 쥐 보는 것이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신다. 내가 매를 맞는다고 주님께서 뭐쳐나가면 주님은 슬퍼하신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아버지를 떠난 나는 방랑자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 배해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제 잘못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교정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인생 앞에 계속 있어야 하고, 그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해가는 축복의 도구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문제를 다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능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시는 것을 모른다. <11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교회 담임목사님은 축도할 때는 축도의 마지막에 늘 "있을 지어다"라고 하는데 가끔 외부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축도의 마지막을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더 올바른 축도라 할 수 있는지요?
-사우스베이의 김 집사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축도에 대한 혼선이 많기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선 축도(祝禱)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축도는 한자의 단어 명칭을 보면 "복을 비는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라 생각하기에 목회자들에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축도(Benediction)라는 단어보다 축복(Blessing)이라는 단어를 예배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축도(헬라어로 유포기아)는 예배의 제일 마지막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것보다는 삼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지 기원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공인된 축도는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제사장들에 의해 행해졌고 신

축도는 기원 아닌 선포... '있을 지어다' 로 해야

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기능을 이어받은 목사, 감독들에 의해 시행됩니다. 축도는 목사가 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나 평신도는 할 수는 없습니다. 축도의 내용은 구약 민수기 6:24-26절과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6:24-26절을 보면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이 축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론의 축도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축도는 사도신경 신앙고백과 더불어 말틴 루타의 예배순서, 존 칼빈의 예배순서, 마틴 부처의 예배순서, 쾰른의 예배순서, 존 나스의 예배순서, 청교도들의 예배순서 등 모든 예배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이것을 사도적 축도(Apostle's Benediction)라고 합니다. 19세기 이후에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고린도후서 13:13절을 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축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리스 휘민 카이 에 이레네 아포 데우 파트로스 웨몬 카이 큐이루 이예수 크리스토"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동사가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바울서신의 문안인사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성경에는 있을지어다를 삽입했습니다.

목사가 축도시에 제일 마지막에 있을 지어다 라고 선포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원드리옵나이다"라고 간구할 것인가는 축도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사가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므로 축도 끝에는 3인칭 명령형 동사로 "있을지어다"라고 해야 함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시에도 빛이 있으라(창1:3).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창1:9) 등 히브리어 3인칭 명령형을 썼지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축도(복)는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복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12회 총 동문회 밤

할렐루야!

존경하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섬기시는 교회와 동문들의 사역 위에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금번 제28회기에서 제12회 '총동문회 밤'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선배, 후배가 서로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부동반으로 오십시오. 제28회기 사업과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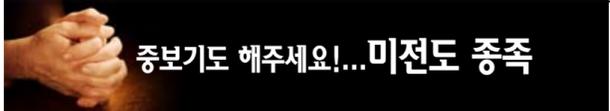
일 시 : 주후 2018년 1월 29일(월) 오후 6:30

장 소 : 퀸즈장로교회 친교실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순서: 1부: 리셉션 2부: 예배 3부: 만찬

* 회비: Donation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르키나파소의 구르마 풀라니(GURMA FULANI)



풀라니 족은 수 세기 전에 북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 서부와 중부 지역으로 이주해온 방대한 종족 그룹이다. 그들은 원래부터 가축들을 먹이기에 더 적합한 목초지를 찾아 가축들을 몰고 이리저리 유랑하는 유목민들이다. 풀라니 사람들은 다른 아프리카 종족들에 비해 더 얇은 피부색과 곧은 머리, 더 날렵한 코와 얇은

입술을 가졌으므로 그들의 근원은 서구 유럽 인종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들은 풀라니 종족이 아닌 종족들과 자신들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풀라니족으로서 특별한 긍지를 지닌 사람들이다. 오늘날 풀라니족은 그들이 사는 지역, 종사하는 직업 그리고 방언에 따라 분류돼 불려진다. 구르마 풀라니는 부르키나 파소 남부 구르마 지역에 사는 풀라니들을 일컫는 이름이다. 그들은 "풀베-라디"(Fulbe-Laddi, 준유목 가축지기들), 즉 가축 사육과 농경을 겸하는 사람들로써 니제르-콩고어족의 서대서양 부류인 풀풀데 구르만체어(Fulfulde Gourmantche)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구르마 풀라니족의 생활은 계절에 의존한다. 우기는 그들의 본거지에서 가축들과 가축들과 함께 지내는 경작과 추수의 시기이다. 건기 동안 풀라니 목동들은 물이 풍부하고 더 좋은 목초지가 있는 늪지대나 홍수 침수 평원으로 나간다.

우로(Wuro, 마을)는 구르마 풀라니 사회의 중심이다. 여기에서 여인들은 대부분의 일들을 하는데 4-5시간 걸려야 완성되는 수수죽을 주 요리로 하는 저녁상 차리기는 여인들의 주된 가사일이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잔가지들과 잡목들을 모으는 것도 여인들의 일이다. 그들은 또한 소뿔을 짜고 버터를 만드는 등 다른 중요한 집안 일들을 하면서 어린이를 돌보기도 해야 하는데 종종 아기들을 등에 업고 이런 일들을 한다.

남자들은 옷 짓는 일을 통해 스스로의 인격과 개성을 표현한다. 남자는 또한 자기 가족들을 입힐 의무를 지어 하므로 그는 자기 옷을 지으며 아내들의 옷과 머리 가리개 등을 산다. 아이들은 스스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옷을 많이 입지 않는다.

15세에 이른 장성한 아들들 둔 남자들은 세대 간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가업을 아들에게 전승해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감독관으로서 우물을 파는 일이나 가축 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 등을 지도하며 어떠한 논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는 일들을 한다.

어린 남자 아이들은 숲에서 놀거나 들에서 새들을 쫓거나 가축들이 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일들을 하며 여자 아이들은 어머니를 도와 가사 일을 한다.

풀라니족은 일을 돕는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

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지는 못하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우기철의 기후가 더 건널 만하지만 그들은 건기 중에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건기철에 가축 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우기 철에 들을 경작하는 일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신앙

구르마 풀라니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약함의 표시로 믿기 때문에 공공연히 두려움을 드러내는 일은 좀처럼 없다. 정신적 질환은 공포에 질려서 자기 통제력을 잃은 것이 원인이라고 믿기도 한다.

그들에게 있어 마을은 규칙과 의무 이행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을 위한 장소로 여겨지는 반면 숲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장소다.

구르마 풀라니족은 외로움을 싫어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독한 느낌을 떨친다. 그러나 풀라니족은 그들의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 만큼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것도 대중 속에 있을 때 국한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단지 노래를 통해서만 자유롭게 표현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구르마 풀라니족의 95%는 무슬림이다. 풀라니어로 번역된 신앙 성경이 있고, 기독교방송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극소수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결코 외롭지 없다는 것을 구르마 풀라니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 많은 기도와 중보가 여전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에 한국계 조엘 김 목사

미국 주류 신학교에 한국계 총장이 처음 취임한다.

김은일(45·미국명 조엘 김·사진) 목사는 9일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4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백인이 지배해 온 미국 내 주류 신학계에서 한인이 총장으로 선임된 사례는 처음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 목사는 지난해 3월까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임 총장 청빙위원회의 위원이었으나 평소 그의 리더십을 주목한 이사진에 총장직을 권유받아 지난해 8월부터 총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목사는 1982년 목회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간 이민 1.5세대다. UCLA(캘리포니아주립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를 졸업한 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칼빈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칼빈신학교 등에서 강의하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다. LA 세계로장로교회, 풀러턴 뉴라이프교회 등에서 부목사로 시무하기도 했다. 인격과 경험, 신학적 견고함, 리더십과 행정능력을 중심으로 자기 총장을 모색해온 청빙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장 박상열(인천 송월교회) 목사의 조카다. 김 목사의 취임식에 초대받아 8일 미국으로 출국한 박 목사는 "교계의 소중한 자산인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최초의 한인 총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를 올린다"며 "미국과 한국 양국 교회의 교리 심화와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총장으로서 '신학은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소망을 밝힌 바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쉽게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의 한국계 총장답게 신학교의 글로벌화에 대한 포부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5-10년 안에 집중적으로 사역할 장소인 아시아와 남미 등 세계를 마음에 두고 구체적인 행동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남미와 아시아의 여러 학교와 파트너십을 이뤄 미국의 리소스를 나누고 세계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취할 때 서로를 섬길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주류사회에서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2세 한인 목회자들이 상당한데 캘리포니아의 이민교회와도 연계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과거 미국의 신학 흐름이 자유주의적으로 흘러가는 데 문제의식을 느낀 신학자들이 프린스턴신학교로부터 떨어져 나와 1929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세운 학교다.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서부지역 분교로 설립됐다가 1982년 독립해 보수 복음주의 신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한국 목회자들이 다수 유학을 다녀갈 정도로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국외 주류 신학교다.

"트럼프, 30년전 레이건이 서울올림픽 활용했듯 평창 활용해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해빙 국면이 조성될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988 서울 하계올림픽 개최를 매개로 북미 관계개선에 나섰던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을 지낸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 연구원과 역시 국무부 북한 담당관으로 북미 대화 경험이 풍부한 조엘 윌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

일 시사지 애틀랜틱에 기고한 '올림픽이 어떻게 북한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느냐'라는 글을 통해 30년 시차를 둔 두 올림픽 상황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두 올림픽을 둘러싼 상황의 "두드러진 유사성"으로 한·미 정부가 올림픽대화에 앞서 총통에서 대화로 나아가도록 전략을 조율할 기회가 있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폭파 테러가 있었음에도 불과 1년만인 1988년 12월 미국과 북한이 중국에서 공식 대화를 시작한 사실을 지적하며 "레이건 같은 냉전 패자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신중한 외교와 서울올림픽의 매우 영리한 활용 결과"라고 설명했다.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올림픽이 무사히 끝나면 북한과 대화한다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침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도 한국전 이래 대북 고립화 정책이 북한의 위협을 키울 뿐이라는 판단에서 대북 접근으로 정책 전환을 검토하면서 이미 1987년엔 한국 정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했던 터였다. 노태우 구상이 자랄 토양이 마련된 셈이다.

칼린 등이 기밀 해제된 미 정부 문서와 전직 관리들과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레이건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판여 전략은 ▲북한인들의 비공식·비정부 차원의 미국 방문 장려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비용 규제 완화 ▲대북 인도주의 물자 수출의 제한적 허용 ▲미 국무부 관리가 북한 외교관과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등 4가지를 골자로 했다.

'신중한 방안'이라고 명명된 이 조치들은 1대 1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지 않고, 북한이 올림픽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시행토록 했으며, 실제로 올림픽 후 시행됐다.

레이건 행정부가 북한에 요구한 것은 ▲남북 대화의 가시적 진전 ▲한국전 때 실종 미군의 유해 송환 ▲반미 선전 중단 ▲비무장지대(DMZ) 신뢰 구축 조치 이행 ▲국가 지원 테러리즘 포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약속 등 5가지였고, 이를 중국을 통해 전달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 정책이 1992년 아널드 캔터-김용순간 핵회담의 기초를 닦았고, 이 회담은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로 이어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멈추도록 했다. 레이건의 대북 정책은 또한 1990년대 초 한국이 북한과 다수의 역사적인 양자 합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칼린 등은 말했다.

칼린 등은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의 선례를 따르기로 할 경우 지난해 발표된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제재를 통한 대북 "최대의 압박"을 유지하되 "외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김정은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 대화용의 표명을 그 신호의 하나로 평가하면서 김정은 개인에 대한 모욕우기를 중단하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유엔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위축받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며 뉴욕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된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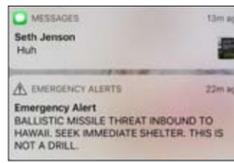
대신 북한에 요구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들로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평양주재 스웨덴 외교관의 점권권 보장, 남북 대화 특히 군사회담에서 진전을 위한 북한의 건설적 역할, 생화학·핵 무기 및 핵물질 관련 행동을 포함한 국제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명시적 선언 등이 있다고 이들은 예시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우선 우리 모두가 (비상) 끝에서 물러나는 코스에 진입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레이건의 접근법은 오랜 기간 북한과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평창올림픽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 한국과 미국이 88올림픽 때의 교훈을 무시하면 창은 닫혀 버리고 마지막 선수가 불을 끄고 선수촌을 떠날 때 현존하는 기회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와이 미사일 소동' 후 미연론 '핵공습 대비법' 소개

하와이를 공포로 몰아넣은 탄도미사일 위협은 오보로 밝혀졌지만 미국인들의 핵공습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방사능 보호장비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인터넷으로 '핵공습에서 살아남기'를 검색하는 빈도가 치솟았다. 미 질병관리본부는 핵폭탄이 터졌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강화를 서둘러 개설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 국토안보부 자료를 토대로 핵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히 소개했다. 먼저 지하시설로 피하라. 방사성 낙진의 피해를 줄이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난방장치를 꺼라. 지하 대피소를 못 찾으면 가까운 지하철이나 터널이 차선책이다. 최소 24시간 동안 머물 준비를 해야 한다. 낙진 피해를 심하면 대피소를 빠져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핵폭탄이 터지면 섬광을 직접 바라보면 안 된다. 실명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 바닥에 바짝 엎드려 머리를 감싸야 한다. 폭발이 멈추더라도 30초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폭발이 만들어내는 후폭풍이 있어서다. 방사능에 오염된 옷은 벗어서 폐기해야 한다.

하와이 출신 탐사 개버드 민주당 하원의원은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버드 의원은 "하와이 주민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실패한 과거 행정부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미, 평창올림픽 때 대규모 특수부대 파견

미군이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조용히 강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연기됐지만 미군이 독자적으로 본토에서 대규모 공습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본토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 기지에서는 아파치 헬기 48대와 대형 수송헬기 치누크가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다. 적군과 교전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최근 수년간 가장 큰 규모였다. 이를 후 네바다주에서는 미 82공수사단이 C-17 수송기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야간훈련을 가졌다. 작전에 투입된 수송기와 공수 병력은 적진 훈련의 배 규모였다.

지난주에는 미주리주에서 B-2 폭격기 3대가 괌으로 이동했으며, 루이지애나주의 B-52 폭격기들도 이달 중 괌으로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미 특수전사령부가 평창올림픽에 파견하는 병력 규모는 100명 수준이었던 2014년 브라질월드컵 당시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대테러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미군은 또 다음 달에 1000여명의 예비군을 소집해 이동지원부대를 설치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병력을 해외로 신속히 옮기는 역할을 하는 이동지원부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수그러들면서 사실상 가능성이 중단됐다.

미 특수전 사령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또 다른 훈련은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 속에서 지하 핵 시설을 제거하는 훈련이다. 마크 마일리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국방부 회의에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중비 부속으로 북한군에 패배한 스키스 부대 사례를 거론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토머스 미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면 5월이나 6월쯤 더 많은 특수부대를 중동에서 한국으로 이동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

했다. 이에 대해 특수전사령부 대변인 제이슨 살라타 대위는 "토머스 사령관이 그렇게 말한 건 맞지만 병력 이동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고 해명했다.

NYT는 미군의 군사훈련 증가를 보도하면서도 이를 전제가 임박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병력과 장비의 집결이 이라크 전쟁 당시와 달리 조용히 이뤄지고 있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여행자세 경고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NYT는 지적했다.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은 현재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이고,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핵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등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군 수뇌부가 유사시 대응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훈련 강도를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봤다.

'여아 성폭행' 70대 한인 구치소에서 자살

캘리포니아 주에서 10세 미만 여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70대 한인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산호세 인사이드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72)씨가 11일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카운티의 엘름우드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안 교도관이 의식이 없는 채 쓰러진 양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했지만 양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8일 수감된 양씨는 숨진 다음날 공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산타클라라카운티 치안국은 재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재조사 41명이 자살을 감행했다. 이중 12명이 숨졌다. 이는 미 전역내 교도소 감옥 내 자살율보다 조금 높다고 산호세인사이드는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강하게 처벌한다. 현지 언론들은 양씨에게 적용된 10건의 아동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입안해' 중국 한 미디어...지구촌, 쓰레기 '대란'

중국이 페플라스틱과 종이 등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자 세계 곳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결정으로 영국 쓰레기처리장에는 페플라스틱이 잔뜩 쌓이기 시작했고 아일랜드와 독일,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홍콩을 비롯한 항구도시들의 야적장에도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세계 최대 재활용 쓰레기 처리국인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중국은 24종의 고체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중국은 2016년 한 해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에 달하는 730만톤의 폐지와 금속 및 페플라스틱을 수입해 가공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중국에 의존해 온 셈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환경보호와 보건위생을 이유로 쓰레기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더럽고 위험한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와 섞여 들어오거나 세척 과정에서 중국의 환경이 심하게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한 폐기물 처리회사 임원도 "향후 수개월 내 영국 전역에서 쓰레기 처리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은 매년 올림픽 수영경기장 1만개를 채우는 규모의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역사의 연속성과 독특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다. 각 시대마다 동일하게 연합하고 부족한 부패한 죄인들로 구성되었지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불변하심을 따라 진리에 복종하며 세상의 가치와 싸우며 몸부림치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는 '연속성'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초대교회 또는 한국교회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이다. 5세기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생겨난 특정한 배경과 함께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중세교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배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초대교회가 걸어온 길, 그 중에서도 마감 바로 전에 교회 안팎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이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구분은 역사가들의 학문적 고찰과 평가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럴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볼 때,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날이 열렸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중세교회 1000년의 역사는 다른 시대에 비하여 우리에게 덜 알려졌고 현대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을 찾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단언하거나 아예 관심을 끊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교회의 '연속성'이란 개념에서 중세교회 역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워놓으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이다.

그 '연속성'을 겉으로 드러난 인간이 남긴 흔적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실망할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중세교회를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대의 모든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잇는 '연속성'과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역사적 '독특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세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초대교회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칫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편적이며 과편적인 지식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초대교회가 마감되었던 이유와 중세교회의 태동을 가능하게 하였던 특정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역사는 각 시대마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교회는 그 배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멸망, 그 이후

초대교회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접하게 된다. 그들 모두가 함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다.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다.

초대교회는 3세기 동안 지속된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를 이겨냈다. 살벌하고 척박한 토양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

게 결실하게 되었다. 313년, 첫 번째 기독교인 로마 군주로 알려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 후 로마 권력자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던 초대교회가 또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것이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소수가 모여 시작된 기독교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힘을 자랑한 로마를 정복했다고 표현해도 그리 지나친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주님의 교회에 반드

로 돌리려 한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변증하였는데, 기독교를 제대로 믿지 않고 죄악과 부정을 일삼았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꼬집어 지적하였다. 아무쪼록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동방교회를 살펴보자면, 324년 이후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Constantinople)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330년에 로마의 수도로 정해진 최초의 기독교 도시로서, 1453년에 오스만제국에 의하여 함락되기까지 '제 2의 로마'라는 의식 속에서 로마의 전통을 이어가려 하였다. 헬라 문화권에서 속한 동방교회는 스스로 정통교회(正統敎會, Orthodox

안낸 것이다.

유럽 지역에 살고 있다가 내쫓긴 주민들은 대부분 초대교회의 출범과 함께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내린 성도들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과거 서로마를 차지한 야만인들이 로마의 산물을 굳이 버리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독교가 로마의 경계를 넘어 야만족에게 전달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독교 경내에 들어온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시대적인 배경의 변화와 함께 서방 로마 교회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정체성은 이전에 비하여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전에는 교회가 로마 황제의 힘에 지배를 받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황제의 정치적 성향과 인격에 따라 긍정적이며 부

못된 해석과 언어 선택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근거를 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교회는 제롬의 성경을 교회의 신앙의 토대로 삼았다.

나아가서 중세교회 1000년 동안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수도원운동이 크게 결실을 맺게 된다. 신앙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막에서 개인적 명상과 고행으로부터 시작되어 공동체를 이루었던 수도원은, 중세를 맞아 규모가 확장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수도원이 없는 중세교회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헌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중세교회 신학의 전통을 세운 다수의 학자가 수도원에서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아쉽게도 향후 수도원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부와 힘을 축적하게 되고, 정치적 야망을 지닌 자들이 반드시 걸쳐가는 곳으로 전락되면서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중세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신비주의가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 초기에는 신비주의를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틀에 담아 두려웠지만, 후에는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전형적인 신비주의의 모습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신비주의는 수도원 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추측이다. 중세교회가 제도와 힘의 확장에 전력하게 되면서 자연히 영적인 일에 등한시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관적 신비주의의 온상이 되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에 이어서 속사도, 그리고 교부들이 교회의 신학적 틀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류를 부정하는 이단의 출현에 대항하여 성경에 근거한 정통 교리사의 중요한 주춧돌을 놓은 것이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출발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와 힘을 키우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애석하게도 서방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어거스틴과 같은 훌륭한 학자의 전통을 이어 가지 못했다.

초대교회의 소중한 유산이 중세교회에 넘어가면서 일부는 유지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변질되고 사라졌다. 중세교회는 성경을 결코 멀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의적 해석을 일삼게 되었다.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는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그 누구도 교황과 교회가 지닌 오류를 견제하거나 도전을 할 수 없는 체제로 굳어져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세교회의 신학은 교황제도를 절대화하고 그런 모습으로 유지하려는 인간적 방법을 수용하였다. 1000년이 흐르면서 교인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교회는 교황을 위하여 존재하는 형태로 굳어졌다. 이로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기본 사상은 가장 성경적이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초대교회 전통 잇는 '연속성'과 새 시대에 필요한 역사적 '독특성' 이해해야 콘스탄틴대제의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역사 중요 전환점 이루는 중대 사건

시 유익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교회의 영적인 일까지도 장악하려는 세속 정치인의 힘, 이와 반대로 세속의 힘을 교회의 권위 아래 두려는 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여,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순수한 복음에 입각한 교회와 신앙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

Church)라고 불렀는데, 자신들이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방교회는 향후 서방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의 기독교로 웃을 갈아입게 된다.

새로운 상황 - 황제의 출현

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교회의 머리임을 자처하는 교황이 출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베드로의 후계로서, 로마의 주교인 동시에 가톨릭교회 전체의 수장이란 위치를 주장하는 교황이 등장하면서 교회 제도의 근본적인 모습이 달라졌다. 교

주관적 신비주의 온상으로 성경 가까이 했으나 자의적 해석 일삼아 교인은 교회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교황 위해 존재하는 형태로 굳어

작하였다. 특히 395년, 로마제국이 동과 서로 분할된 후 급기야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됨으로서 기독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태리 중부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되어 지중해 연안 전체를 정복하고, 동으로는 아시아의 대부분과 북으로는 영국과 서유럽으로 진출하여 대제국을 이루며 강력한 힘을 행사하던 로마제국이었다.

일부에서 로마가 오래전부터 섬겨오던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결과였다고 주장하는 소리가 있었다. 제국의 쇠퇴와 멸망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 신앙으

로 방기하는 313년 이후 로마 황제의 후원을 받아오던 중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자 극심한 혼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통하여 교회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얻게 되었다. 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서방로마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새롭게 바뀐 것이다. 로마 제국이 없어지면서 많은 야만족으로 채워졌다. 그 당시 유럽은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프랑크나 독일 등의 선진 국가가 아예 형성되기도 전이었다. 야만족이 강한 힘을 앞세워 땅을 차지한 뒤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쫓

회가 정치와 결탁한 뒤 잃었던 순수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향후 지나친 힘을 지닌 중세교회는 교회와 정치 사이의 대결구도로 인하여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야만 하였다.

초대교회의 유산

교황권의 확립으로 시작된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유산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부 제롬(Jerome, 347-420)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 로마가톨릭교회가 제롬의 잘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multiple entries for NY, NJ, Hawaii, and other regions, including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성경도 신앙(45) 청교도와 학교 교육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4) 공립학교와 청교도 교육의 칼빈주의 지향

초창기 청교도들은 가정에 의한 교육에 전념하였지만, 교회와 국가의 긴밀한 유대는 뉴잉글랜드 교육에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1636년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기독교 사역을 담당할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한 학교-하버드대학 설립을 위해서 400파운드의 지출을 승인하였다. 사실 미국 최초의 3개 대학-하버드(1636), 윌리엄 앤드 메리(1693) 그리고 예일(1701)은 기독교 신앙의 동기에서 문을 연 학교이다. 예일대학은 하버드대학이 칼빈주의 교리에 대해 약화된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시작되었다. 이처럼 미국 뉴잉글랜드의 초창기 학교는 철저한 칼빈주의적 개혁교리를 지향하고 있었다.

1600년대 후반의 매사추세츠 주의 법은 교양과목, 과학, 기독교 종교와 건전한 윤리학들을 포괄하는 교훈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1642년에는 모든 부모의 후견인들은 자신들의 권한 아래 아동교육을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에서 부과한 벌과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주의회 조례가 생겨났다. 그런 판결에는 기독교 교육을 확보해야 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청교도의 강조가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법에는 공립학교의 설립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들이 가정에서 적당한 수준의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함으로서 공립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닦았다.

학교들은 공립(public)으로 설립되었지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의미와는 달랐다. 타운(township)의 권위와 감독 하에 학교가 설립되었던 점에서 공립적이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권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무료학교(Free School)라는 관점에서 공립은 아니었다.

학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내기보다는 개개 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했다. 일부 가난한 아동들이 무료로 출석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교회에서 설립한 다른 학교에 보내지거나 무료학교에 양도되거나 또는 기독교 기관이 설립한 무료학교에 다녔다.

5) 가정학교와 공립 초등학교의 교육내용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 생긴 가

정학교와는 성격상 전혀 달랐으며 아동들이 자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전념하였다. 자녀를 둔 부인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이웃 아동을 맡아서 교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보잘것없는 급료를 받으면서 여 선생은 읽기와 쓰기와 청교도 교리 문답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가정일도 수행하였다. 분명히 그것은 학교였지만 가정활동이기도 했으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변화시키는 것은 17세기의 중대한 교육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공립학교의 교과과정은 5세에서 10세에 이르는 아동이 성경을 읽고 또 노동의 현장에서 제 노릇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읽기, 쓰기, 셈하기(3R)를 가르치는 것으로 우선 제한되었다. 기독교의 경건이 크게 강조되어 교사는 읽고 쓰는 것과 수학의 영역 이외에도 당시의 기

통제권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 이 '초보독본'은 문고판 크기로 된 88쪽에 불과한 소책자였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을 대단하였다. 내용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이었는데 발췌 성구,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동을 위한 문체 철자와 기도문 그리고 부지런하고 경건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아동에 대한 훈계가 사용되었다.

그 책은 또 코튼의 '영의 양식', 로저(John Roger)의 '아동에의 권고'(Advice to Children) 그리고 '기독교 교리문답 개요'에서 대부분 인용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운문체 철자였다. "아담이 타락하였기로 우리가 범죄하였노라" 따라서 '초보독본'은 읽기 수업의 목적 외에도 기독교적 도덕진리

부모가 수업료 내는 공립학교는 자국어 습득능력 주력, 기독교경건 강조 초등교육 영향이 웨스터에게 끼친 영향으로 인해 오늘의 미국 영어 정립 문법학교는 공동체의 기독교 지적생활 보존과 교회지도력 제공위해 설립

독교 교리문답을 능숙하게 다루도록 요구받았다. 암기와 낭송은 학생들이 공부를 진지하게 하도록 훈련시키는 데 사용한 방법론적 길잡이였다.

그 당시 책은 역시 청교도 지도자들의 것이었다. 존 코튼(John Cotton)과 코튼 매리(Cotton Mather)의 일부 소책자인 '교리문답 개요'(Schorter Catechisms), 시편집, 그리고 성경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던 유일한 문서화된 책자들이었으며 또 그것들은 수업에서 사용되던 일차 자료 구실을 했다.

가정 학교와 공립 초등학교에서 공히 아동의 손에 쥐어준 최초의 도구는 책이라기보다는 한쪽이 종이 한 장을 붙인 조그만 나무 조각과 같은 것이었다. 그 종이에 글자, 숫자, 주기도, 사도의 축복기도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인쇄되었다. 인쇄된 종이는 전체가 투명한 각재로 뒤덮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글씨본'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도구는 물론 아동들에게 기초적인 읽기를 가르치고 또 시편집, 교리문답 그리고 성경에서 발췌한 문장을 읽도록 준비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이 글씨본은 1600년대 말에 유명한 '뉴잉글랜드 초보독본'으로 대체되었고 이 책은 영국 성공회 교회의

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초보독본'은 학교 이외에도 가정, 상점, 그리고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아동과 청소년이 교리문답을 철저하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데 이용되곤 하였다. 그 책은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식민지 학교의 1차적인 독서의 길잡이가 되었다. 코트의 '국어학교 선생님'에서 출판된 철자법 책자들 역시 사용되었는데 성향은 기독교적이었다.

나중에 웨이커교도 조지 파스(George Fox), 토머스 달워시(Thomas Dilworth) 그리고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와 같은 사람들은 철자법 작가, 문법학자 그리고 낭송자가 최초로 출판했던 교과서(The American Spelling Book)가 1783년에 출판될 수 있도록 힘을 닦았다. 청교도 교육의 초등교육의 영향이 영어사전을 편집한 웨스터에게 끼친 영향으로 인해 오늘의 미국 영어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라틴어 문법학교
100가구 이상이 되는 보다 큰 마을에서는 1647년의 법령이 규정하는 대로 라틴어 문법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학교는 공립 초등학교가

폐지된 곳을 선정하도록 계획되었다.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고전 교육을 시키길 바란던 가정에게 문법학교는 다음 단계의 교육이었다.

학교의 교과과정은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인 이들 청소년들이 정통하도록 라틴어와 헬라어 그리고 문학을 7년 연속 공부하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공립 초등학교가 2년이나 3년 연속 간단하게 평범한 사람들의 교육을 제공했다면 문법학교는 엘리트들의 욕구를 만족시켰다.

그것들은 15, 16세기 유럽 인문주의자들이 르네상스를 부활시키던 시기에 발생한 영국의 공립 또는 문법학교들의 양식을 본뵈었으며, 그 당시에는 대학에 입학하고 또 시민이나 기독교적인 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전 언어와 문학의 배경을 가져야 한다고 여겨졌다. 기독교를 중시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에서 비롯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라틴어 문법학교와 그 학교의 예비적 성격의 필요성을 표현하였던 하버드 대학이 1642년에 라틴어와 헬라어에 정통한 학생들의 입학에 허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민지 문법학교는 공동체의 기독교 및 지적 생활을 보존하고 또 교회에 박식하고 학문적

인 지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던 것이다. 문법학교의 교과과정은 처음 두해 동안 라틴어와 헬라어 문법과 어휘의 기초원리를 강조하면서 출발했다. 학생들은 헬라문학과 더불어 신약성경과 히브리어 일부를 공부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양의 학과를 부과하고 주 6일 간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는 매우 고된 일정이었다. 학급은 일정에 따라 1년씩 나뉘어졌으며 또 교실은 상급학년들이 사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된 책상을 갖추었다. 교직은 당시까지 교과과정의 일부였던 기독교와 교리문답 수업에 따라 엄격하면서도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 당시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보스턴 라틴어 문법학교에서 가르쳤던 치이버(Ezekiel Cheever)였는데, 그가 수감된 것을 애도하는 코튼 매더(Cotton Mather)의 장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탁월한 어학 선생님! 그 가르침은 학문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분은 백함을, 또 복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여운 어린이를 구세주께 인도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는 교육자가 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새 남은 날'

새해소망을 4글자로 말해보기를 하다가 '새 남은 날'이란 4글자가 강하게 가슴을 친다. 나에게 '지난날'과 '남은 날' 두 종류의 날들이 있는데 이제 한해를 넘긴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또 남은 날들 중에 새날을 맞이해 보며 가슴 뛰는 설렘을 가져본다.

지난 한해는 무의미한 말들만 잡다하게 늘어놓고 산 지난날들은 아니었는지... 사실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주장만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산 날들은 아니었는지... 정작 내 얘기는 속 빼고 남의 말만 신나게 떠들다 훌쩍 지나버린 날들은 아니었는지... 십년 이십년이 지나도 바뀔 줄 모르는 지극지극한 낡은 습성의 연속은 아니었는지... 연초에 세운 장황한 계획과 각오가 무산된 한해는 또 아니었는지... 쫓기듯 스느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슴에 묻어 두고 지나온 세월은 아니었는지... 비난의 소리로 가슴이 막히고 생채기가 나서 파랗게 멎은 시간들은 아니었는지... 늘 샘하고 계산해도 모자라고 모자라는 재정에 짐을 꼴깍 삼키며 불안해하는 나날들은 아니었는지... 한 해 동안 이루어 보려 손을 꼽았던 많은 일들을 아직도 미지수로 남겨놓은 한해는 아니었는지... 우리 힘은 어쩔 수 없는 숨을 쉰 오는 고통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은 아니었는지...

무수히도 그렇게 돌아볼 것이 많은 지난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나의 남은 날들은 더 이상 이전의 지겨운 낡은 습성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30년간 40년간 해오던 지루한 패턴으로 남은 생을 다 허비할 순 없어. 그래서 끊어야 할 것은 끊고, 그 자리에 진짜 말들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 놓는 작업을 결단하자고 새해를 다짐해 본다.

나는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 새로운 느낌... 아니 나는 생생한 생명으로 다시 살 거야! 오래됨에 찌든 내가 어떻게 새로움을 살아내지...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다. 오래된 습관들에게 지배당하지도 끌려 다니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말다. 그것들을 그저 바라봐주고 이해하고 다스리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너무나 지극지극하게 잘못 살아왔기에,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 새로움이 서툴더라도 잘 살피며 정성으로 사는 새 남은 날이 되어 보면 좋겠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창 40:6). 그렇다. 요셉은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동료들의 얼굴 빛을 살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좋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한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옆 사람의 표정을 살필 줄 알리라. 말보다는 눈으로 가슴으로 말하며 소소한 관계도 크고 소중하게 맺어 나가야 새 남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 내가 행복하면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문제이다. 내 생각과 고집과 편견과 욕심과 게으름이 나를 가막고 있는 거다. 내 생각 하나만 바뀌면, 내 가치와 기준만 바뀌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문제도 아닌 세상으로 주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진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 산다는 것은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만난 그의 영혼이 더 커지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리라.

이제 새 남은 날을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이 하얀 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렇게 낮은 자의 마음에 오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새롭게 맞이하며 오늘 서 있는 우리 자리가 바로 울타리도 벽도 없는 낮고 천한 구유가 되어 우리 삶에 쏟아지는 하얀 은총으로 모든 힘든 이들의 힘겨움을 하얗게 지워 버리고 '새 남은 날'을 맞이하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 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8-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6:30 EM 대부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p>베델한국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6: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요점: 오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새끼기도회: 365일 24시간</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St.,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경공부(목요일)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C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socals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i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예배)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청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5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69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목회서신

인생의 급선무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수록 힘써 할 가장 급한 우선순위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모테후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귀한일이 다시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일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바로 생명 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장로회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학생회 임원수련회를 대...

황이었습니다. 그 후 변동제일교회에 등록하고 세례 받고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하었는데 세월이 지나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감리교회 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은 바로 지상에서 걸어다니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생명 건지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방주의 역할 구조선의 역할을 하기위해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도 짓고 구조를 위한 대원들의 조직도 하고 후원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명 구조대원들이 모여 파티를 하고 조직의 회장 선거를 치열하게 하고 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바닷가에 배가 암초에 부딪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임원들과 한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다"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제40대 회장 이취임 예배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남상국 목사) 제40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4일 오후 4시 30분 남가주 가스펠교회(담임 이원준 목사)에서 열렸다.



OC목사회 이취임 감사예배에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상국 목사는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다"며 "임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올 한해 열심히 목사회를 섬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는 김근수 목사(부회장)사회와 가스펠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문현봉 목사(OC목사회 자문의원)이 기도했으며 장혜숙 목사(OC여성목사회 회장)이 성경봉독했으며 해브리 미션 코랄이 특별찬양했다.

사회 임원명단이다. △회장: 남상국 목사(나 말씀선교재단) △이사장: 이원준 목사(남가주가스펠교회) △부회장: 박희성 목사(원 호프 교회), 김근수 목사(정신교회), 김학정 목사(맑은사랑선교재단), 이용훈 목사(이루리선교회), 윤건상 목사(주님의마음교회), 유의상 목사(풀러튼 영락교회), 최정자 목사(은혜한인교회) △총무: 최다니엘 목사(수마교회). (박준호 기자)



미주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신년하례회 예배를 마치고 참석동문과 사모들이 기념촬영 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은혜 체험..." 미주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신년하례회

미주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박성원 목사)가 지난 15일 신년하례회를 갖고 2018년을 출발했다. 2년 만에 다시 신년하례회를 가진 동문회는 오전 11시 뉴욕드든한교회(담임 남일현 목사)에서 만나

예배를 드리고 오찬 후 윗놀이와 경품 추첨 등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수석부회장 이재철 목사(79회, 필라델피아선교단) 인도로 기도 남일현 목사(93회), 성경봉독 장의한 목사(79회, 뉴햄프셔장로교

회), 말씀 박성원 목사(78회, 뉴욕나눔의집), 헌금기도 우종현 목사(85회, 뉴저지임마누엘교회), 축시낭송 조의호 목사(57회), 광고 정광희 목사(81회, 뉴저지 영광장로교회), 감사패 증정(직전회장 박희근 목사, 79회)에게, 축도 박성만 목사(51회)의 순서로 드렸다. 박성원 목사는 "고난의 유익"(고후1:3-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뉴욕 나눔의집 대표로서 사역현장의 이야기들을 간증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며 "상처받은 자가 타인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다. 고난은 내 신앙생활의 성숙과 기도 훈련의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동남부예비역기독교군인회' 창립을 마치고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8번째(중앙)가 심만수 초대회장

회장 심만수 목사, 수석부회장 김종권 목사 미동남부 예비역기독교군인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 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KVMCF) '미동남부지역 예비역기독교군인회' 창립총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애틀랜타의 둘루스 소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총회에 앞서 드러진 창립감사예배는 창립준비에 힘쓴 백형로 목사가 사회를 맡아 엄두섭 목사의 기도, 심우진 목사의 축사, 백성식 목사의 설교, 김종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백성식 목사(아틀란타한인장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딤후2: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위해 부름 받고 좋은 군사로 헌신했으며, 한번 군인이면 영원한 군인이라는 정신으로 오늘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좋은 군사로 필요한 3가지인 충성심, 복종심, 애국심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비역기독교군인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지난 1958년에 한국에서 '예비역

기독교교회'로 창설된 동 단체는 지난 2007년에 '예비역기독교군인회'로 명칭이 변경돼, 한국에 중앙회를 포함 17개 지회가 있으며, 이번 동남부지회를 포함 총 10개의 해외지회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애틀랜타 6.25 참전회장이며, 준비위원장인 심만수 목사가 초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수석부회장에는 김종권 목사(조지아해병목사회)가 선출됐다. 심만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단체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라는 표어처럼,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며, 애국하는 일에 하나 되고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창립 임원 명단 △회장: 심만수 목사 △수석부회장: 김종권 목사 △부회장: 유혁준 목사 △홍보부회장: 이윤태 장로 △총무: 백형로 목사 △협동총무: 이재광 목사, 류영호 목사, 나태효 목사 △서기: 김민수 목사 △재정부장: 윤도기 목사 △회계: 이춘봉 장로, 송명자 사모 △감사: 백성식 목사, 여태용 목사, 김태현 장로. ▲문의: (404)790-1911 (기사제공: 미동남부예비역기독교군인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주최 미주한인의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 13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예배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주최 미주한인 이민110주년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은 미주한인 이민 110주년과 제 13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예배를 13일 오후 5시 SS레인빅토리교회에서 가졌다. 유영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기념예배는 흥연숙 교수가 기도했으며 조수리 형제가 미주한인의 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이우호 목사가 마태복음 5장 16

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교회)가 축도했다. 2부 만찬에 이어 시작된 3부 순서는 조영규 전 국회의원이 축사했다. 한국전쟁 당시 SS레인빅토리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던 조영규 의원은 "SS레인빅토리는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2월 7일 7,009명의 원산시민을 구출한 배"라 소개하며 "이 배를 탈수 있었던 것은 감

사한 일이다. 이 배는 7009명의 원산시민들에게 자유와 새 삶을 주었다. 또한 이 배는 한국과 미국의 교량역할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우방이 되고 동맹국이 될 수 있게 했으며 두 나라의 힘을 합쳐 자유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미주한국의 날을 경축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 2005년 미의회는 1월 13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국민들이 우리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라 말하며 "미주한인의 날을 축하하면서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이민자로 가진 꿈을 분명히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자각시키고 도움을 줘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국의 가치관과 전통 문화 언어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재단은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동포사회가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축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정우성 목사 가족이 특송을 불렀다. 이날 행사는 이우호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팀 신년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신년하례 및 비전선포식

남가주 LA에 위치한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남가주지회(KVMCF SC)는 13일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신년하

례식을 겸한 정기예배를 가졌다. 이날 설교는 샘신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가 했으며 목사회 임원들이 중창을 했다.

이어서 신임임원 명 취임식에서 회장에 김희창 박사, 부회장에 최청학 차기학, 총무에 백소피아, 서기 최만규, 회계 오재식을 임명하고 취임식을 가지면서 직전 회장인 권영구 장로에게 공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년하례식에는 이기홍 목사의 덕담과 최학량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의 연주와 목사사중창이 있었으며 김혜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김희창 회장은 비전선포식으로 본 단체의 미래의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기사제공: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미주성결교회 소속 남가주교역자회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2018년'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신년하례회

미주성결교회 소속 남가주교역자회(회장 김희창 목사, LA지방회, LA동지방회, 남서부지방회의 연합) 신년하례회가 지난 14일 오후 4시 30분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에서 사모와 자녀들 200여명

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부회장 주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회장 김희창 목사의 신년인사, LA동지방회장 안신기 목사의 기도, 총회장 이상복 목사의 '주님과 함께하는 2018년'이라는 설

교 후 LA지방회장대행 김종호 목사와 남서부지방회장 최진호 목사의 중보기도 후 본 회를 매년 섬겨온 유니온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한 후 부총회장 최경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신년하례식을 가지면서 이기홍 목사의 5분 덕담과 금년에 OC수퍼바이저 도전하는 영 김전기주의원의 고백적인 화술로 회원들은 지원을 결심한 듯 보였으며,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메시지 덕담으로 격려했다. 이어서 3부 격려와 축하의 만찬을 유니온교회 제공으로 떡국과 손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나누면서 4부는 신용성 총무의 진행으로 선물교환과 총회장 및 부총회장과 고남철 목사 등의 특별 찬조를 받아 푸짐한 행운권 추첨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동부교계 기사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유재일 목사)가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정규 신학교 M.Div 학위 졸업자나 2018년 6월 이전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이 있는 자로 고시일자는 2018년 5월 18(금)-21(일), 장소는 뉴욕이다. 고시과목은 a)필기고시: 교회사, 조직신학, 미국장로교회사, 헌법 b)제출고시: 구약주해, 신약주해, 논문, 설교원고 c)면접고시. 응시서류는 신학교 졸업증명서, 신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이력서, 명함판 사진 2장과 고시료 150달러를 내야 한다. 모든 서류 및 고시과목 원고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718)986-8442/고시부부장 조성훈 목사(kfpcny@gmail.com)

뉴욕청소년센터 SAT과정 개설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가 2018년 봄학기 대학 진학을 위한 SAT과정을 개설한다. 과목마다 개인별 레벨 테스트 후 반을 편성 지도한다. 기간은 2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점심 포함). 대상은 중, 고등학생 선착순 10명. 수업은 Reading, Writing, Math, Mentoring. 수업료는 850달러.

▲문의: (718)279-1313 김준현 목사

스마트폰 초중급반 강의

씨존(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초중급반(76기)이 1월 18일(목)부터 25일(목)까지 총 3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 40분까지 열린다. 아이폰 위주로 강의하며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 LG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스마트폰 구입 3개월 미만의 왕초보반이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등의 고급반 강의는 상담 후 개별 지도한다.

▲문의: (718)414-4848, 353-2537

'뼈와 건강 세미나

뼈 권위자 이규현 박사(캐나다 뼈와건강연구소 소장, Ph.D.)의 '뼈와 건강' 세미나(소주제 '암과 갈증')가 뉴욕(1월 19일 뉴욕평화교회), 뉴저지(1월 22일 뉴저지순복음교회), 필라(1월 20일 굿뉴스인터넷복음방송)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하며 예약자들에게는 무료로 골밀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세미나는 골다공증, 관절염, 암 환자, 목회자와 선교사를 대상으로 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50명에 한해 접수한다. www.SacionCa.net

▲문의: (917)291-3800, (718)414-4848



KPCA 뉴욕노회 노회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KPCA 뉴욕노회 (노회장 최호섭 목사)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노회장 최호섭 목사) 2018년 신년하례회가 14일 오후 6시 뉴욕한민교회(담임 주영광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최호섭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부노회장 김중대 장로, 말씀 김석중 목사, 공로패 수여, 광고 서기 주영광 목사, 축도 전 노회장 박맹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은퇴한 김석중 목사는 "신앙의 원리, 믿음 소망 사랑"(살전1:2-4)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등 3가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그 하나님의 심자가 사랑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 소망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끊임 없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기를 축원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노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한 한기하 장로(예일교회)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C&MA 한인총회 동부지역 노회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C&MA 한인총회동부지역회 (회장 이지용 목사)

C&MA 한인총회 동부지역회(회장 이지용 목사) 2018년 신년하례 감사예배가 8일 오후 6시 뉴욕어린양교회(담임 박운선 목사)에서 열렸다.

신년모임을 통해 "예수의 심장을 가진 2018년이 되자"라는 뜨거운 설교가 선포됐으며, 목회수첩에 꼭 기록해 놓아야 할 신년 메시지들이 오갔다.

신년하례 예배는 사회 한순규 목사(부회장), 찬양과 경배 김윤근 목사(벨립교회), 기도 마초훈 목사(뉴욕침례교회), 신년사 백한영 목사(감동)와 이지용 목사(회장), 성경봉독 김윤근 목사, 특송 동부지

역회 사모들, 설교 고석희 목사(지구촌세계선교교회), 신년축복 메시지 윤영호 목사(뉴저지교회 협회), 최명호 원로목사 이병수 목사(뉴욕복음선교교회), 헌금기도 박운선 목사, 헌금특주 수잔 오 자매, 직전 임원들에게 감사패 전달, 지원금 전달, 광고 한기슬 목사(서기), 축도 허경열 목사(뉴욕웨체스터선교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지원금으로 크리스천연합선교교회(김태욱 목사), 소자선교교회, 주님의식탁선교회(이종선 목사), 무지개의집(김은경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계 단체, 각 노회, 한인총회 신년하례 갖고 2018년 출발

2018년 새해를 맞아 뉴욕교협을 비롯한 각 교단의 노회 및 지방회와 신년하례 모임을 갖고 예배와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새 날을 맞이하며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며 각오를 다진 신년하례회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열렸으며, 뉴욕교협과 장로협, 뉴욕일원의 각 노회와 한인노회들의 신년하례 모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뉴욕교회협 (회장 이만호 목사)

15일 저녁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신년감사예배 하례찬양에서 회장 이만호 목사는 "날씨가 사회적 분위기나 얼어붙은 뉴욕에서 따뜻한 예수사랑 실천하는 '교협'으로 교계와 동포사회를 섬기겠다"며 "미자립교회 후원과 아울러 고통 받는 한인동포들을 돕는 교협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는 "강하고 담대하라!"(삼하10:9-14)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하고 "우리 모두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곳에서 한 공동체가 됐다"며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을 언급했다.

김 목사는 본문을 통해 3가지 담대한 이유를 "첫째 엄선, 둘째, 겸손, 셋째 시선"이라고 소개하며 "엄선된 리더들을 뽑고, 겸손이 있는 진정한 용감한 자,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의 살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방을 품는 리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외치자"고 역설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정순원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양민석 목사, 성

경봉독 이사장 김주열 장로, 축사 박효성 총영사, 찬양 퀸즈장로교회 연합중창단, 설교 김성국 목사, 특별합심기도 김재권 목사, 봉헌기도 이주의 장로, 헌금 뉴욕권사선교협 창단, 축도 김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기도는 △북한 핵과 한국 안보 △평창올림픽 △한국 대통령과 경제적 부흥 △3명 선교사 석방 △한국교계 영적 부흥 △미국의 안정적 이민정책 등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2부 하례식은 총무 김희복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문석호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미, 한국 국가제창, 신년사 이만호 목사, 내빈축사 한재홍 목사, 룬 김 뉴욕주의원, 피터 구 뉴욕시의원, 허정운 NYPD, 시상(목회자상: 김남수 목사, 안창의 목사, 신현택 목사, 평신도상: 이상호 집사, 손성대 장로), 축가 뉴욕장로성가단, 후원금 전달식 김주열 장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 만찬은 허연행 목사 기도 후 진행됐으며 축주와 경품추첨 등이 있었으며 조원태 목사 기도로 폐회했다.

(유원정 기자)

제목의 설교에서 "많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혜 있거나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가? 어려울 때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셔서 목회할 수 있다. 예수를 바라보면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할 때 능력으로 살게 된다"고 전했다.

이날 합심기도는 문종은 목사 인도로 미국과 조국, 세계에 흩어진 한인족 복음화를 위해 총회와 노회와 지교회와 노회원과 가족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했다. 노회원들은 아이보리코스트에서 30여 년간 선교사로 사역하고 뉴욕에 정착한 황인진 목사를 위해 즉석 헌금시간을 갖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KAPC 미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뉴잉글랜드노회 주관으로 메사추세츠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1월 26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 교협 신년 하례예배에서 김성국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KAPC 뉴욕노회 노회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일원 노회(개최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노회들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2018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뉴욕남노회(노회장 이재덕 목사) 7일/뉴욕센트럴교회

1부 감사예배는 인도 조덕남 목사(서기, 락크랜드장로교회), 기도 전현수 목사(기드온장로교회), 설교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부총회장 김재열 목사는 요엘 2:28-32절을 본문으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들에게 큰 힘과 도전을 주었고, 조성희 목사(후리싱장로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 뉴욕센트럴교회 권사회가 대접한 떡국과 풍성한 음식으로 애찬을 가졌고, 목사회원 부부와 장로 부부들 간의 단체 윗놀이로 친목을 다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뉴욕동노회(노회장 황상하 목사) 8일/뉴욕참교회

노회원들은 '무술해'라는 3행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이든지 '술술 풀리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덕담들을 나눴다.

노회장 황상하 목사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사40:1-1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잊기가 쉬운데 목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이지만, 목회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질식시킬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전도, 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언약의 내용은 무시하고 언약의 의무규정에만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잊혀졌다. 교회 지도자는 적어도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과 목회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언약과 내용과 이런 규정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통찰력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통성기도 후 조성덕 목사가 미국을 위해, 조문휘 목사가 조국을 위해, 박희근 목사가 총회와 노회와 교회들을 위해 마무리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참교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윗놀이를 통해 친교를 나누었다.

가든노회(노회장 박형기 목사) 10일/뉴저지우리교회

예배는 사회 부노회장 허상희 목사, 기도 조성훈 목사, 성경봉독 이종식 목사, 말씀 노회장 박형기 목사, 합심기도, 광고 서기 김재호 목사, 축도 이준성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합심 기도 후 박해장 목사가, 총회 노회 지교회와 뉴욕과 뉴저지 지역 사회와 성도들을 위해 합심기도 후 오종민 목사(뉴저지 우리교회)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김지희 목사의 식사기도 후 우리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이 진행됐다. 이어진 친교를 통해 윗놀이와 제기차기가 진행됐다. 노회원들은 선물을 교환하고 경품을 나누었으며 우리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더해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뉴욕서노회(노회장 이종태 목사) 15일/심령이가난한교회

이종영 목사 인도로 시작된 신년하례예배는 임동열 목사 기도 후 임원일동이 특송했으며 이종태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종태 목사는 "열심과 도전"(딤후 2:1-10)라는 제목으로 "열심과 나이, 도전과 재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며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재능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 사회나 교회나 노령화가 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으로 도전할 때 유익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 받지 않기 위해, 둘째 대적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약하다 할 것 없도록 하기 위해, 셋째 범사에 하나님이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신분, 직분이 어떠하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신 말씀대로 열심과 도전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노회는 3월 6일(화) 오전 9시에 82회 정기노회를 갖는다. 장소 미정.

뉴욕노회(노회장 허윤준 목사) 16일/새사람교회

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이영상 목사, 성경봉독 정기태 목사, 설교 이규분 목사, 통성기도, 축도 장영준 목사, 광고 이종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규분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고전1:24-31)이라는



KAPC 가든노회 노회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KAPC 동노회 노회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KAPC 남노회 노회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신년예배 제8대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겸해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가 지난 8일 저녁 7시 금강산 연회장에서 2018년 신년감사예배 및 제8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7대 회장 손성대 장로와 이사장 박용기 장로가 이임하고, 8대 회장 김영호 장로와 이사장 박해용 장로가 취임했다.

이날 신년 감사예배에서는 뉴욕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가 율기 23:10-14를 본문으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6, 7대 회장을 역임한 손성대 장로는 이임사를 통해 "장로들의 신앙성숙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상호 친목과 선교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계의 화평과 부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장로연합회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 장로연합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

다"며,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80대 중반에 회장이 된 김영호 장로는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아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김 장로는 "장로는 교회에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그 위에는 집사와 권사가 있고 맨 위에는 신임교인들이 있다"며, "교회의 제일 밑바닥에 앉아 섬기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장로의 정체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영호 장로는 임기 내 중점사역에 대해 언급하며 목사님들이 하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뒷바라지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미약 퇴직운동을 교회로 통해서 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명성교회 세습반대 해외동포 성명서 발표 LA기운실 등 483명 서명 동참... 통합측에 성명서 전달 예정

LA 지역 목회자와 교인들이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명성교회의 결정 철회와 명성교회가 속한 노회 및 총회에 제발 방지를 촉구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민교회 교인과 목회자 일동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명성교회 세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가슴을 치고 있다며, 이민교회 교인과 목회자 일동은 “명성교회 세습은 윤리적, 사회적, 영적, 선교적 등 어떤 면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총회의 결정과 법안, 그리고 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대형교회의 자만과 교만이 도를 넘었음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 참여자는 총 488명(목사 159명)으로 목회자와 평신도 등 다양했다. 미주 지역 목회자 가운데에는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 시카고한인교회 서장권 목사, 중원선교회 민종기 목사, 토론도말교회 노승환 목사, 서부장로교회 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민교회 교인과 목회자 일동’은 488명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익 목사,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 나성한미교회 신용환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안성복 목사, 남가주 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성명은 12일 캘리포니아 인테르네셔널대학교 강당에서 발표됐으며 송병주 목사 외에 이상병 총장(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민종기 목사, 권태산 목사(올림픽장로교회), 박문규 대표(LA 기운실), 김선익 목사(서부장로교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명성교회 교인들이 나서 세습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성명은 구글폼으로 설문지를 디자인한 후 송병주 목사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명을 받았다. 송 목사는 명성교회 후임자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성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텍사스, 일리노이 등 미국 전역과 캐나다, 동티모르, 싱가포르, 케냐 등 세계로 퍼져나갔다.

송병주 목사는 “대형교회들이 세습 문제가 터질 때마다 쉽게 여긴 것은 일부 반대라는 사고와 좌과편의 속에 교회를 흔드는 세력처럼 여겼다”며 “NGO들이 이에 대해 의사를 전달해도 일부의 문제만 여겼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명성교회 문제는 명성교회라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의 복합적 문제다. 이 운동을 온라인 중심으로 하면서 진보적 기독교인들과 일부 언론의 일로 국한되지 않고 목회자 성도들도 이번 세습에 공감하지 않으며

서부교계 게시판



제 11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연합회(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운명 목사/월드크릭 GIM교회 담임)가 주최하는 제 11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All Nations Intercessory Union Prayer Conference)가 1월 28일(주) 샌프란시스코 이스트 베이 San Lorenzo의 Village Baptist Church(담임 Kevin Waldrop)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열린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대하7:14)라는 주제로 한민을 비롯한 미국 주류와 러시아, 루마니아, 호주, 버마, 중국, 우간다, 통가, 일본, 라티노 등의 30여 민족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다.

▲문의: (925)639-9527

LA복음연합감리교회 신년말씀축제 ‘행복한 동행’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 신년말씀축제가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21일(주) 오전 11시에 갖는다. 강사는 박성민 목사(아주사피사릭대학교 부총장).

▲문의: (323)641-0691

선한청지기교회 ITS 신학생 초청의 밤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ITS 신학생 초청의 밤 행사를 20일(토) 오후 5시30분에 갖는다.

▲문의: (626)913-6611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미7:7)라는 주제로 25일(목)부터 28일(주)까지 열린다. 강사는 유재명 목사(안산 빛나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5일(목) 저녁 7시30분, 26일(금) 오전 5시30분, 저녁 7시30분, 27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 28일(주일) 1-4부 예배.

▲문의: (714)446-6200

남가주주님의교회 신년부흥성회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 신년부흥성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 자라 착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5일(목)부터 28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김영현 목사이며 일정은 25일(목) 저녁 7시30분, 26일(금)과 27일(토) 새벽 5시30분, 저녁 7시30분, 28일(주) 1부, 3부 예배이다.

▲문의: (626)965-9191



중원선교회에서 열린 신년부흥성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김상복 할렙루야교회 원로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주제로 중원선교회 신년부흥회, 강사 김상복 목사

중원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신년부흥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신년부흥회를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부흥회는 김상복 목사(할렙루야교회 원로)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14일 예배시간에 열린 마지막 날 부흥회에서 ‘사랑의 추구’(고전 13: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상복 목사는 “이 세상에 중요한 것 많다. 돈, 명성, 많은 인생의 성취 등 그 모든 인생의 성취 가운데 후회 없이 사는 길은 사랑하다가 죽는 것인데, 바울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하게 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 계명을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나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신비하고 놀랍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이웃이다. 이웃 가운데도 첫째가 가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첫째이며, 성도들이 둘째, 직장 동료 등 이웃이 셋째, 그리고 땅끝에 있는 자들까지다. 하나님사랑, 자기사랑, 이웃사랑에서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며 후회 없는 인생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그런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속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과 찬미 밖에 없다. 무엇을 해도, 주여, '주님 나를 보호하시네, 좁은 길을 가도 나를 인도해 가시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상처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해에도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난 앞에 가슴답답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가리움을 경험한 사람,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 가운데 미래를 열어나가는 사람에게는 상처도 고통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은혜가운데 고백할 것이다.

“무슨 상처를 그렇게 자주 받아요? 왜,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문제와 고난은 상처가 아닙니다. 제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새해에도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할 것이나, 오직 주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davidnjon@yahoo.com



남가주 한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연합회 2018 새해맞이 예배 및 잔치에서 이문영 목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신앙의 유산” 주제로 세미나도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연합회 2018 새해맞이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연합회(회장 최경애 권사)는 2018 새해맞이 예배 및 잔치를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2부 순서로 ‘신앙의 유산: Knowing and Doing’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이문영 목사(원서연합감리교회)가 강사로 나서 인도했다. 세미나 주제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현실 우리는 무엇을 잘 못했을까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없을까?’로 조별토론 시간을 가졌다.

토론을 통해 “자녀들에게 귀 기울여주지 않고 우리 이야기만 했다. 우리가 말하면 그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교회에서 소리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나오는 젊은이들을 볼 때 흥겨운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젊은이들이 변화할 수 있다.”

“우리 세대는 교회건축, 봉사 등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왔다. 이민 와서 또순이처럼 살았다. 은퇴 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걸 알게 됐다.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정작 그들과는 다뤘었다.”

“이민 와서 고생하고 힘든 생활로 인해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게끔 바란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을 위해 공부를 강요했고,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주일에 교회가는 것보다 학원가는 걸 택하게 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해 성공적으로 돈 걱정 안하고 살아가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부메랑이

돼 결국 교회에 빈자리가 많아지게 됐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문영 목사는 “예배시간에 젊은 친구들이 성경 읽으러 단상에 올라갈 때 반바지 등 보기에 민망한 모습으로 올라가게 될 때 그것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한다. 하지만 교육이전에 필요한 것은 관계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은 지적이며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되었기에 지적을 받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다니게 했다. 하지만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장로 가정에서 불신자 자녀가 나오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다음세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가 열리기전에 갖게 된 1부 예배는 최경애 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장호경 통신서기가 예배로의 부름을 인도하고 박현숙 사회부장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을 낭독했다. 이어 변경희 제2교육부장이 기도했으며 정희은 자료주방이 성경봉독을, 김도민 목사가 ‘섬김(룻4:13-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성만찬을 가진 후 김도민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고 김도석 율튼장로교회 담임목사 천국환송예배

김도석 목사 천국환송예배

고 김도석 율튼장로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천국환송예배는 12일 오후 6시30분 율튼장로교회 본당

에서 열렸다.

서정운 목사 집례로 열린 예배는 최승구 목사가 기도했으며 강신익 목사가 성경봉독, 율튼장로교회 성



남가주장로성가단 신년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창단 26년... 청년의 꿈 갖고 나가자 남가주장로성가단 신년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

남가주장로성가단 신년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이 11일 오후 6시 30분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열렸다.

부단장 김용식 장로 사회로 열린 단장 이취임식은 전임단장 이영수 장로의 이임사를 겸한 인사가 있었으며 전임단장이 신임 단장 박영집 장로에게 단기전달, 신임단장이 이임단장에게 공로패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25대 신임임원소개가 있었으며 25대 단장 박영집 장로의 취임사가 있었다.

박영집 단장은 “이영수 전임단장과 모든 임원들의 노고를 감사드리고 또 운을 댄 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한 분들이 있기에 장로성가단이 있게 된 것’이라 말했다.

박 단장은 “장로성가단이 창단 26년째 됐다. 큰 꿈을 가지고 나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따라운 눈초리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설명했다.

송 목사는 이어 “세습을 철회하는 것은 김하나 목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성숙한 소명의식에 달려 있다.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바르지 않아도 잘하면 다 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무서울 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상명 총장은 “교회세습은 물적 토대위에 서있는 것”이라며 “대물림의 논리는 아들이나 사위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향유한 물적 토대를 대물림하는 형태”라 지적했다.

민종기 목사는 “1997년 한국 총현교회가 대형교회로는 최초로 세습을 했다. 그 결과 3만명 이상 출석하던 교회가 6천명 이하로 출석수가 급감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012년 김창인 목사가 준비되는데 아들에게 물려준 게 잘못된 것이라 눈물로 회개했다”고 말했다.

권태산 목사는 “명성교회의 문제는 사회문제”라며 “이번 세습 문제가 복음전파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박문규 대표는 “명성교회의 문제로 교회개혁이 더 힘들어졌다”며, “목회세습 혹은 교회세습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윤리적 반기독교적 행태는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이러한 생위가 이민교회에 발붙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주 목사는 예장통합과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 동남노회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자신이 속한 해외한인장로회(KPCA)총회와 서중노회에 명성교회 문제를 다뤄줄 것에 대해 건의하겠다고 각 교단 목회자들이 총회나 노회(지방회) 등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개진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박준호 기자)

아갈 때다. 장로성가단은 한걸음 더 높은 찬양을 드러 찬양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치유 받고 세상에서 남과 달랐던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는 찬양을 부르는 성가단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올해는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찬양뿐 아니라 영감 있는 찬양으로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임원들을 섬실것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취임식은 장로성가단 단가를 부른 뒤 조성환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이취임식 전에 열린 신년감사예배는 총무 문광규 장로 사회로 최세용 장로가 기도했으며 남가주 장로중앙단이 특별 찬양했다. 이어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잠4:2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경서 목사가 ‘새 하늘과 새 땅’(계21: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송실OB 합창단이 조가를 불렀다.

그리고 고인의 동생인 김도우 장로가 추모사를, 차남 김세민 씨가 조사를, 고인의 동생 김도림 장로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상구 목사가 축도했다.

13일 오전 9시30분 글렌데일포레스트에서 열린 하관예배는 한현중 목사 집례로 시작, 조영철 장로가 기도했으며 한현중 목사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3-18)라는 제목으로 설교와 축도를 했다.

고 김도석 목사는 1933년 11월 3

일(음력) 함경남도 원산에서 부친 김원상, 모친 장보녀의 4남2녀중 둘째 아들로 출생했으며 1948년 월남, 1960년 청신리교회를 개척했다. 1966년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8년 김운영 사모와 결혼 후 도미했다. 1985년 현재 교회 건물을 구입해 첫 예배를 드렸으며 1985년 미주한인장로회 서노회 제13대 노회장으로 피선, 1993년 미주한인장로회 총회 제18대 총회장에 피선됐으며 1998년 남가주교회협의회 제28대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천국환송으로 이 땅에 산다’, ‘이슬람교 연구서’ 등이 있다.

(박준호 기자)

기감, 이단에 교회 건물 팔아 하나님의교회에 지난해 4월 마포 지역교회 매각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지난해 이단 종파에 교단 산하 교회를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기감 유지재단은 지난해 4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울연회 마포지역의 H교회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구 안상홍중교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교회는 국내 주요 교단들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의 경우 “교주를 신격화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잘못된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등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단”이라며 선을 그어 있다.

기감 소속 교회들의 재산은 모두 유지재단에 등기돼 있어 교회 자체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최근 공개된 이사회 녹취록에는 이사들이 이단에 교회를 매각하는 것을 두고 격론을 벌인 흔적이 남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 매각하지 않으면 경매로 나와 그 이단이 헐 값에 낙찰 받게 된다”며 “이단 좋은 일 사키지 말고 지금 제값에 팔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님의교회가 H교회에 제안한 금액은 55억원. 심지어 H교회 인근의 모 장로교회가 40억원에 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금액이 차이가 크다며 무시했다. 또 다른 이사는 “

교회에 10년 동안 18억원을 이자로 냈다”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만큼 15억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자”고 ‘매각 지 지발언’을 했다. 매각에 반대한 이사들은 “나중에 이 같은 일이 기사화되면 감당할 수 있겠냐”며 맞섰지만 대세를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한 이사는 “그 자리에 있던 이사들이 매수자가 이단인 걸 인지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침통하다”면서 “심지어 회의 자료를 찢어서 폐기하라는 안내까지 했고 실제 이사들은 자료를 찢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매각에 우호적이었던 이사들은 9일 취재가 시작되자 “할 말이 없다”거나 “난 책임이 없다. 이사장(전명구 감독회장)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해 전명구 감독회장은 “해당 교회를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으로 무척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개교회의 간곡한 요청을 담은 편지가 공중분해되는 것만큼은 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단 매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단 매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

한 일이다. 특히 하나님의교회가 기성교회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4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장로교회와 2012년 충남 서산의 교회 등이 재정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교회에 건물을 넘겼다. 2009년 인천의 한 감리교회도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회를 하나님의교회에 매각했다. 강변북로 바로 옆에 위치한 한 장로교회는 2006년 주요 교단들이 교류를 금지한 한 종파에 교회를 팔았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이단이라는 굴레를 감추는 데 기존 교회를 매입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특히 하나님의교회는 대로변에 있던 교회나 관공서로 사용되던 건물에 큰 관심이 있는데 이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거부감을 줄이는 포교 방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무리한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탁 교수는 “기본적으로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게 교회가 이단에 매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단들이 무리한 건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지목한 뒤 부도나갈 기마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교총 “한국교회 문제 연합해 해결”

현판식 갖고 공식 업무 돌입... “한기연·한기총 등과 대화 협력”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공동대표회장 전계현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 목사)은 11일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현판식에 앞서 진행된 예배 설교에서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은 “비행기는 이착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사고도 많다”며 “지난해 산고를 딛고 12월 창립총회를 하기까지 긴장감 높은 순간들을 보냈는데 올해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한교총이 비상하는 한 해를 맞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급성

장을 이뤘지만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으며 회복도 쉽지 않다”면서 “한교총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연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이어진 현판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한국교회에 복주시기 원합니다. 2018년 1월 11일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실 개소를 선언합니다”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새 출발을 축하했다.

현판식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교총의 2018년 주요 정책기조가 소개됐다. 한교총 총무 변창배 목사는 “한교총 산하엔 한국교회의 95% 이상인 5만5000여

지교회와 소속돼 있으며, 회원교단의 뜻이 한국교회의 뜻으로 알고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연합기관 분열’에 대한 외부 시각에 대해선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대표회장들이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장과 만나 통합에 대한 대화와 문서를 나누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화 진행에 대해선 “연합단체들과 대화 진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교단과의 소통과 연합’ ‘한국교회의 미래 준비를 위한 개혁’ ‘한국사회를 향한 섬김’ 등 세 가지 주요 정책기조를 제시했다. 한교총은 정책기조에 따라 10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령세계 2020 신년기도회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30차 정기총회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는 2018년 새해를 맞아 1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성령센터에서 ‘성령세계2020 신년기도회’ 및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년기도회는 사무총장 김창곤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이호선 목사가 성령세계 2020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평화통일위원장 손광호 목사가 한국기독교성령문화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했다.

부흥위원장 임명숙 목사의 성경 봉독에 이어서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가 사도행전 2: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말씀 후 참석자들을 합심으로 기도했다.

중경대표회장 배진기 목사가 신

년사, 증경명예회장 이은대 목사가 격려사, 이사장 안준배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중경대표회장 김용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의 사회로 사무총장 김창곤 목사의 회원점명,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사무총장 김창곤 목사의 사임보고, 감사 정균양 목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총회원은 30대 임원을 2년 임기 중 일부조직을 보완해 인준했다.

△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 상임회장 이호선 목사 △ 공동회장 박응순 권경환 정균양 임명재 박재근 장기철 목사 △ 사무총장 김창곤 목사 △ 신학위원장 한정에 교수 △ 교회일치위원장 안준배 목사 △ 포럼위원장 남준희 목사 △ 기도위원

장 김명복 목사 △ 국제위원장 정균양 목사 △ 사회위원장 장현일 목사 △ 선교위원장 김학수 목사 △ 평화통일위원장 손광호 목사 △ 부흥위원장 임명숙 목사.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는 유관단체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를 ‘성령세계 2020’으로 전환해 ‘성령으로 세계를!’을 주제로 성령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장립 29주년이 되는 2018년 3월 25일(주) - 28일(수) ‘성령충전 2018’ 성회와 창립29주년 성령포럼을 시작으로 ‘성령한국 2018’ 10대 지역성회를 개최한다.

8월에는 ‘성령남아메리카 2018’을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페루에서 개최한다. 또한 2019년에는 성령아프리카, 성령차이나, 성령아메리카, 성령에루살렘, 성령오세아니아를 개최하고 2020년에 성령세계2020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중앙협의회)

한기총 대표회장선거, 후보자격·이단성 논쟁

엄기호·전광훈·김노아 출사표...선관위 “전광훈 후보 자격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자격 여부와 이단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마감 결과 엄기호(71) 한기총 대표회장과 전광훈(62)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서울 세광중앙교회 당회장이 김노아(79)씨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모임을 갖고 전 원장의 서류를 반려했다.

최성규 선관위원장은 15일 “전 원장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이 2013년 한기총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제출한 교단 추천서를 인정할 수 없었다”면서 “신원 조회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아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원장 측은 “그동안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이라는 단체장으로 한기총 공동의장직을 계속 수행해왔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해 왔다”면서 “그런데 후보 자격이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엄 대표회장이 교단 추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원조회증명서도 정보통신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선거를 진행하면 선거무효 가져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씨와 관련된 이단성 논쟁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예장통합은 2009년 “김씨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단회와 유사한 이단사를 갖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도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씨의 이단성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교단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김씨에 대해 1년간 예의주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대위 측은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씨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목사고시 합격일이 1980년 9월이지만 신학대 졸업일은 1984년 12월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목회자들 목회 만족도 크게 하락

한목협, 목회자 507명 설문조사

목회자들의 절반이 시무교회의 목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에 비해 평균 설교 횟수, 전도 경험이나 해외 선교사 파송 비율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목회자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대표회장 이성구 목사)가 9일 발표한 ‘2017 목회자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서 나타났다. 시무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목회자의 44.3%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2012년 조사 당시 71.8%에서 27.5%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3.3%로 조사됐고, 불만족한다는 답변도 22.4%로 나타났다.

목회 관련 세부 항목별 만족도도 크게 줄어들었다. 교회 사역에 대한 성도 참여, 기도와 예배의 영성, 전문화된 사역, 지역 사회 봉사 등 교회를 운영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분야들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최소 21.2%포인트

에서 최대 35%포인트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표 참조).

목회자들은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문제를 심각하게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의 신앙과 일상생활의 태도가 일치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2년 97.4%에서 67.2%로 크게 줄었다. “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의 태도가 일치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2012년 87%에서 63.5%로 줄어 들었다.

목회자의 목회 적극성도 떨어졌다.

목회자의 평균 설교 횟수는 5년 전 7.5회에서 6.7회로 줄었다. “최근 1년간 전도 경험이 있다”고 답한 목회자는 50.8%에 그쳤다. 해외선교사 파송 비율은 5년 전 31.4%에서 15.9%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목회자들은 목회 환경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성장의 정체, 영성, 전문화된 사역, 지역 사회 봉사 등 교회를 운영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분야들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최소 21.2%포인트

(14.0%) 등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현실 때문인지 이상적인 교회 규모를 묻는 질문에 264명이라고 답변, 5년 전 450명에서 대폭 줄어든 숫자를 답했다.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한 목회자는 21.9%였다. 특히 49세 이하 목회자들의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답한 비율은 2017년 86.4%로 목회자들 중 절대 다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를 묻는 질문에 고 옥환목사(8%)가 1위에 올랐다. 이어 고 한경직(4.4%) 장경동(3.6%) 조용기(3.2%) 고 하용조(3.1%) 고 손양원(3%) 목사 순이었다.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6%였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에 대한 답변은 한기총(43.3%) KNCC(13.2%) 한기연(9.5%) 한교연(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식조사는 지엔컴리서처에 의뢰, 한국교회 목회자 507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된 결과다.

“2017년 기독교출판물, 전반적 상향평준화”

제34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성경문화배경사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은 ‘성경문화배경사전’(생명의말씀사)을 제34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17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풍습, 관습, 제도 등 문화적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생생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며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 신학생뿐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가졌던 많은 의문을 비교적 간단히 그리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성경사

전과 스테디바이블 전문 기획사인 ‘가스펠 서브’가 기획 편집한 책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모두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대상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신앙 발달에 관한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풍습, 관습, 제도 등 문화적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생생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며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 신학생뿐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가졌던 많은 의문을 비교적 간단히 그리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성경사

전과 스테디바이블 전문 기획사인 ‘가스펠 서브’가 기획 편집한 책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모두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대상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신앙 발달에 관한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풍습, 관습, 제도 등 문화적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생생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며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 신학생뿐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가졌던 많은 의문을 비교적 간단히 그리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성경사

서울고법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지은 것 위법”

사랑의교회 “판결 존중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지은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사랑의교회 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교회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며 “관계법규 해석에 있어 법원과 구청의 입장이 다른 만큼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같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 판사 문용선)는 11일 황일근 전 서

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건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도로 지어 1077㎡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도로점용 허가의 목적이냐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새 예배당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졸업식, 보건의료 무료진료소 등 교회 외적 용도로 사용되며 입당 후 4년 동안 행사에 참여한 인원만 500명밖에 이

를 만큼 일반 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그럼에도 일부 주민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불교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지적에 “어린이집은 개원과 동시에 서초구청에 위탁돼 교회와는 별도로 등기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립(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서민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사랑의교회는 건축 당시 공공도로를 점유한 대성전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교회 측은 복구비용으로 최소 391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사이비종교와 정치권 유착 고리 끊겠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부정선거 감시단’ 발족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종교개혁·총재 정동섭 목사)은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이비종교와 정치권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부정선거 감시단’을 출범했다.

감시단장을 맡은 허병주 목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교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국가 지도자가 특정 사이비종교인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경우 나라가 존립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허 단장은 “대통령을 비롯해 지도자의 도덕성은 종교에 영향을 받는다”며 “다가오는 선거에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 하는 것은 나라의 앞날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이비종교와 정치권 유착

의 위험성을 알렸다.

또 “민주주의의 꽃은 공정한 선거가 밑거름이 되어 피어나는 것”이라며 “현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정선거에는 꼭 사이비종교가 개입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선에서 모 후보자는 사이비종교 스캔들에 휘말려 대선을 포기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사이비종교와 연관된 정치인이 많았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때문에 서울 구로구에 감시단 본부를 두기로 했다. 또 부산 인천 등 광역시에 6개, 경기도에 8개 등 모두 23개의 지부를 운영한다.

감시단은 행동지침서를 발표하고 부정선거를 감시하되 불법자료나 편파적인 자료 수집은 금지했

다. 또 정확한 제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대외비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부정선거 적발 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발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것, 선거 불개입, 제보자나 피선거권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의 원칙을 정해 감시활동에 나선다.

종교개혁 정동섭 총재는 “가족을 잃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살인에 휘말리는 등 온갖 범법행위의 온상이 돼 있는 사이비종교는 그 뿌리를 덮기 위해 언론을 매수하거나 정치인과 결탁하고,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돈과 표 등을 함으로써 몰아주는 방법으로 총선이나 대선, 지자체장들의 선거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빌붙어 기생충처럼 살아가려는 사이비종교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mission 선교의 창 (93)

신앙전수의 산실인 가정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는 화란에서 태어난 유대인 혈통의 철학자인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Spinoza)가 한 말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스피노자의 말처럼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녀교육이다. 자식농사 천하대본이란 말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밖에서 화려하게 업적을 세워도 자녀들이 빠져들면 부모는 기가 죽는다. 기쁨이 없다. 비록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곧게 자라면 든든하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다.

그렇다면 자식교육의 산실은 어디인가? 가정이다. 가정에서 신앙과 사랑의 결핍은 학교나 교회 등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회복하기 어렵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와 이 사회도 무너지게 된다. 이로서 우리는 사탄의 최우선 공격적인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신앙계승을 위한 아름다운 터전이 되도록 심혈을 쏟아야 한다.

1. 보편적인 한인 가정의 실태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도 한국에서 결혼 건수는 281,635이며 이혼 건수는 107,328이다. 결혼 대비 이혼율은 38%에 해당된다. 이민 가정은 아마도 더할 것이다. 이혼 없이 자녀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과연 얼마나 될까?

보통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여유가 없다. 부모는 생활고를 책임지느라 동분서주한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나아가 마음적인 여유도 없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빠를 바빠"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민가정들은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바쁘다. 요즘은 아이들도 바쁘다. 부모 중 누군가 집에 있어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

다. 한참 갑수성이 예민할 때 청소년들이 썰렁한 집을 드나들며 홀로 밥 차려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정은 자녀들이 곁들기 쉽다. 설사 부모가 집에 있다 해도 심신이 고달프고 자녀들과의 세대차이로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자녀들의 눈에는 부모가 완고하며 무식하게 보이고 부모들의 눈에는 자녀가 미덥지 못하고 한심하게 보인다. 모처럼 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교회나 여러 단계의 모임들로 인하여 늘 가족이 희생되곤 한다. 부모는 부모세대들끼리 자녀들은 자녀세대들끼리 주로 어울리다보니 부자간의 거리감은 커 가기가 힘들다. 결단 내 부모요, 자식일 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슬픈 일이다.

2. 유대인 힘의 원천인 가정

가정이라는 그 열매로 그 진가를 판단한다. 민족이나 국가도 배출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우수성을 판단해볼 수 있다. 이 지구상에는 약 24,000종족이 있다. 이 중 유대인은 0.2%이다. 그러나 유대인은 노벨상 32%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민족은 노벨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데 유대인은 해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저들은 자기 땅이 없이 세계를 유랑하면서 타민족에 의해 숭한 박해를 받아왔다. 나치하에서 저들은 600만 명이 희생되었고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때도 수 없이 학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인동초처럼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대체 유대인들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회당이나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랍비들은 각 가정의 아버지를 제사장으로서 세워 그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당에는 3가지가 없다. 식당과 주일학교와 주차장이 없다. 떡을 때는 것과 말씀 전수는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다. 유대인의 가정은 삶의 터전이며 또한 성전이다. 이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가 거의 일상을 같이 한다. 온 식구가 말씀과 사랑과 봉사의 삼겹살로 묶여있으니 사탄이 침노하기 어렵다. 천국이 그들 가정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

3. 세대와 문화차이를 극복하게 한 유대인의 가정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11월 29일 총회에서 영국의 위임통치를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의 약 56%를 유대인들의 국가에 주는 팔레스타인 분할을 결의했다. 일부 영역을 잃게 된 아랍권이 이를 거부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로부터 5개월 보름만인 1948년 5월14일 전격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활문화가 같으니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정서,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세대차이도 없다. 이로서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물려받아 유대인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이렇게 가정을 통한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이 유대인들을 출중하게 만들고 있다.

4. 수직문화를 수호해야 할 가정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은 가능한 수평문화를 차단하고 수직문화가 깃들게 해야 한다. 수직문화란 어떤 것인가? 현용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직문화(Vertical Culture)는 '심연문화' 혹은 '뿌리문화'라고도 한다. 이 문화는 한 인종의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문화에 몰든 사람은 마음이 허하다. 저들은 자존감과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위 사람과 주위 환경을 의식한다. 따라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형적인 것 즉 땅의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비싼 외제 옷이나 자동차, 이상한 머리 모양과 색깔 등으로 치장한다. 따라서 인간이 수평문화에 몰든게 되면 수직문화를 잃게 된다. 수직문화를 잃게 되면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세대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5.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 위임하는 가정들

대체로 한인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 의뢰한다. 부모는 그저 먹고 입고 필요한 생활용품만 대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여긴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희귀하다. 자녀들을 향한 주된 관심사는 그저 학교성적이다.

교회 안에서 자녀세대들을 향한 교육적 실상은 어떠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젊은 전도사들이나 교사들이다. 그들은 학업이나 직장

6. 한인 기독교 가정이 나아갈 길

한인 기독교 가정은 정통과 유대인의 가정처럼 신앙전수의 요람으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로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이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를 부모로 본다. 아무리 밖의 선생님들이 도움을 준다 해도 부모만큼 자녀들을 알 수는 없다. 사랑할 수도 없다. 책임질 수도 없다. 유대인들을 자식에게 말씀전수를 실패하면 자식농사 실패로 여긴다.

둘째 수직문화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수평문화를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13세 이전에 수평문화는 아이들 교육에 치명적 유해를 낳는다. 13세 이전에 거의 모든 뇌구조가 형성되며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좋아한다고 TV, 게임, 셀폰 등을 방치할 때에 감각적인 대중매체들이 자녀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셋째, 세대 차이를 없애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가정에 가면 부모와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다. 부모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선호하지만 자녀들은 퓨전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을 좋아한다. 듣는 음악이 다르고 보는 영화가 다르며 읽는 옷도 다르다. 늘 만나는 사람도 다르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을 자녀들대로 끼리끼리 만난다. 주일날 출석하는 교회가 다르고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부서가 다르다. 이렇게 생활구조와 사고체계가 다름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시간이 갈수록 거리감이 생긴다. 세대 차이는 결국 동질성을 훼손하며 남남처럼 떨어져게 만든다.

넷째, 전통적인 가정예배보다는 주일식탁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유대인들은 떡을 때는 것과 말씀 전수를 동일 선상에 놓는다. 무엇이든 즐거워야 효과가 있다. 예배도 일상적인 흥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온 가족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식으로 토론하며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7. 신앙 가정을 세우는 목회

우리는 종종 하나님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이란 교회(Catchphrase)를 본다. 여기서 교회중심이란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구약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성전중심이었다. 오늘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유행교회로 한정하면 문제가 있다. 성경은 성경이 내주하는 너희가 성전(고전3:16, 6:19)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우주적인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

(16면으로 계속)

가정은 신앙전수를 위한 첫 번째 선교지이다.

한인가정은 부자간의 의식구조와 생활문화가 다르다.

교회는 가정이 수직선교의 산실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근 2천 년에 걸쳐 디아스포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며 20세기의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저들이 서로의 문화 차이가 없이 하나로 모였다는 것이다.

저들은 어디에서 왔든 카프탄(caftan)이란 검은색 망토 같은 것을 동일하게 입고 있었고 키파(Kippah)란 모자를 썼으며 모두 코셔르(Kosher)라는 전통 음식을 먹고 있었다. 언어는 히브리어를 썼고 토라와 탈무드를 모두 배우고 있었다. 만일 유대민족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전통문화와 사상이 없었다면 민족 타민족에 혼적도 없이 동화되었을 것이다. 설사 2천년 만에 한 곳으로 모였다고 해도 너무 다른 이질감으로 한 국가를 형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2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저들은 세대 차이가 거의 없다. 지금도 저들은 3세대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이 안식일을 지낸다. 식탁 공동체로서 온 가족이 홈메이드 음식을 먹으며 탈무드와 토라를 학습한다. 저들은 식탁에 하나님의

문화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종교, 관습, 사상, 이상, 언어, 고전문학이나 음악 그리고 역사 등이다. 따라서 수직문화는 유형무형의 교육을 통하여 대를 이어가면서 인간의 정신적인 유산을 말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철학적, 이상적인 가치이다. 수평문화(Horizontal Culture)는 깊은 사상이 없는 표면에 나타난 문화이다. 이는 일시적이면서도 인간의 외형적인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이하학적인 가치들이다. 예를 들면 인간의 부귀영화, 권력, 명예, 외형적인 생김새나 유행들이다. 즉 유행가, 의복, 인스턴트식품 등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 만들어졌다가 싫증이 나면 곧 다른 것으로 항상 바뀌는 문화이다. 수평문화를 이루는 4대 요소는 인본주의를 구성하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과학만능주의, 쾌락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

아무튼 수직문화는 인간의 내면적인 것들에 가치를 둔 반면 수평문화는 인간의 외면적인 것들에 가치를 둔다. 수직문화가 강한 사람은 심지가 깊고 의지도 강하다. 인생에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수평

일로 마음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바쁜 일정을 쫓겨야 학생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저들의 사명감이나 열정 등은 굳이 거론하고 싶지 않다. 주일학교 교육시간은 1년 52주를 한 번에 2시간씩 할애해도 총 104시간 밖에 안 된다. 교육의 내용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에 맞추어져 있다. 1년에 한번 있는 성경학교나 수련회도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 위주이다. 정작 수련회에 가야 할 아이들은 많이 빠진다.

교육은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현재 주일학교에서 더어나고 있는 교육의 내용으로 과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세속의 물결을 이기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성장해갈 수 있을까? 그들이 제대로 교육이 일어난다면 왜 커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대학 때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교회만 바라보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러므로 평상이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적 책임이 이루어지면서 교회 수직학교가 보충할 때 효과가 있다.

담임목사 청빙 공고

시카고 한인교회는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된 시카고 인근 Hoffman Estates 시에 위치한 교회로 창립 45주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힘써온 교회입니다. 지난 20년을 섬기신 3대 담임 목사님이 북한선교에 전념하기 위하여 사임(조기은퇴)함에 따라 차세대 이민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실 4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자격 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목회경력(Full Time)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
- 한국어와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 분
- 미국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

2. 제출 서류

- 본교회 양식 지원서(kcclove.org에서 download)
- 목회 계획서(시카고 한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비전과 계획)
- 목사 안수 증명서 및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추천서(2명 이상)
-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소개, 소명 - letter size 2장 이내)
- 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2편) 및 영어 설교(1편, optional) 동영상

3.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Email: kcc.pulpit.app@gmail.com (PDF로 보냄)
- 주소: Korean Church of Chicago, 1500 W. Algonquin Rd, Hoffman Estates, IL 60192, USA Attn: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4. 제출 기한

- 2018년 1월 31 일까지(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에서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시카고 한인교회 청빙위원회로 메일해 주시면 됩니다. Email: kcc.pulpit.app@gmail.com

시카고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시카고 기독교방송국 부국장 청빙

미주 지역 한인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며 시카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데 힘쓰고 있는 본 기독교방송국은 이제 개국40주년을 맞아 기도해주시는 많은 애정자 여러분들에게 좀더 은혜스럽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고자 아래와 같이 부국장을 청빙하고자합니다.

1. 자 격

- 정규 신학교 졸업후 목사안수 받으신분
-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 구사 가능하신분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분
- 방송 선교에 사명을 가지신분

2. 제출 서류

- 이력서 와 본인 및 가족사진 1부
- 방송 선교의 중요성 1부
- 목사 안수 및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추천서 (2명 이상)
- 자기 소개서

3. 서류 제출 기한

• 2018년 2월 28일까지

4. 서류 제출처

E-mail: kcbstone@gmail.com
주소 : 5817 W.Demspster St, Morton Grove IL 60053
전화 : (847) 583-0191

5.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 보장이되며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시카고기독교 방송: 이사장 백송학 장로 (773) 844-5676
국 장 김순철 목사 (847) 208-9191

시카고기독교 방송

세계기독교인연합회 독후감 공모전 우수작

박보라 집사



오해, 이해 그리고 신뢰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를 읽고

일주일 전 작은 엄마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난소암으로 시작하여 자궁, 위, 폐까지 전이되어 암 투병을 하신 지 수년이 지난 터라 가족들 모두 긴장감이 무더졌었는데, 이제는 그 끝이 오려나 보다. 이전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여 격리실에 홀로 남겨진 작은 엄마는 그 외롭고, 두려운 시간 속에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전화로 인사를 남기고 있었다. 때마침 목사님의 권유로 사 놓은 유석경 전도사님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배달되었다. 하필 이 상황에 이런 책이라니. 조금 망설여졌지만, 작은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이 책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였다.

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았던 일이 작은 엄마의 죽음을 앞에 두니 너무나 쉽게 해결되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서면 용서도, 사랑도, 결단도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그 어떤 부수적인 삶의 것들이 부질없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 맨 처음에 있는 성경 구절은 1년 동안 주님께서 두 번이나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다. 이 책을 읽음으로 총 세 번째 받게 되는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예레미야 29장 11절).

작년 3월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의문이 생겼다. 사실 성경을 매일 읽지만, 이 말씀은 처음 보는 것처럼 생소했고, 그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다. 그 후에 바로 독일어 계신 이모의 비보를 듣게 되었다. 엄마 같았던 이모의 죽음은 내게 재앙과 같았다. 반년을 정신 못 차리고 슬픔에 해매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수필로 적어낸 공모전에서 난 생각지도 못하던 대상을 받고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 평생 글쓰기를 소망했던 나였다. 주님께서는 결국 이모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내 미래를 여시고, 희망을 주셨던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주님께서 아시는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지 몹시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았다.

그녀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보는 시각은 나에게 크나큰 울림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를 들은 모든 케이스가 다 내가 행하고 있는 실수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자유의지로 행하여 놓고서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며 ‘그래, 저 나라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라고 내 마음에 정죄한 것. 그녀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더욱이 죄인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 고난과 실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답이 된다’라고 한 그녀의 말에도 동의가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꼭 찾아온다는 말도 흔히 하는 말이었고, 내 남편이, 내 믿지 않는 식구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하고 다닌 적도 많았었기에 책을 읽으며 참 부끄러웠다. 난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며 날마다 눈물짓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가치 없게 만드는 죄인이었구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던 베드로를 상상한 적이 있다. 내가 만약 그때의 베드로였다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어땠을까? 난 갑자기 울음이 났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을 것 같다. 두 번째 물으시고, 세 번째 다시 물으실 때는 고개가 점점 더 숙어지고, 목소리도 기어들어 갔을 것이다. 나도 그녀가 좋아한다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참 좋아한다. 특별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라는 가사는 수십 차례 돌려 듣기도 했다. 우리가 흥해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바다를 갈라놓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베드로와 같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 이겠는가. 온몸에 희열이 느껴지는 상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니,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해주시길 때, 배 안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주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는 세상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가끔 나의 과거의 죄들이 다시 살아나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요, 용서함을 다 받은 일인데도, 사탄은 자주 내게 그런 거짓말을 하며 좌절시키려 한다. 열심을 내던 사역들도 ‘내가 이런 사역 할 자격이나 되나’ 싶어 내려놓고자 하는 생각이 굴뚝같이 생긴다.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다. 어느 교회 신년 배너에서 참 멋진 글귀를 본 적이 있다. ‘하나님을 뺀으로 세상과 맞짱 뜨자!’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뺀으로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 그렇기에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전도에 대한 열정은 참으로 나를 도전케 했다. 나도 책의 예시처럼 전도의 은사가 없다는 핑계로 직접적인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비신자들이 목장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전부다. 그런데, 울어먹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리 시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시누이네 가족이 시택을 우리 집으로 한 달간 여행을 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중보 기도 팀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한 달 남게 용기 없는 나를 극복하 여기저기 꼭 그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시누이네 부부는 오기 전부터 교회를 가려면 정장을 챙겨야 하나,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들은 역시 교회에서 키워야 할 바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용기가 생겨 열렬히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 그들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매주 교회에 나간다. 내게 이번 주도 교회에 나갔노라고 인증사진을 보내줄 때면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1)가 절로 나온다.

(15면으로 계속)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폴립

대장 검사 때 흔히 발견되는 용종

대장 검사를 하다보면 검사 후에 용종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환자들이 많다. 어떤 용종은 제거하지 않고 두면 악성종양이 되어서 나중에 더 큰 수술이 필요하지만 양성인 경우에는 그대로 두어도 악성 종양이 될 위험이 거의 없다. 용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대장의 용종은 매우 흔해서 전체 성인의 30-50퍼센트에서 발견이 되고 대부분은 악성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또 악성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작은 용종이 자라서 악성종양으로 변하는 데는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는 용종의 수와 종류, 크기, 위치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다음 대장 검사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용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는 생활 습관 때문이다. 용종은 식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선진국에서는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 이를 통해 음식과 환경요인이 용종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질이 많은 음식과 쇠고기의 섭취량이 용종 발생과 관계가 있고 흡연이나 비만이 관계가 있다. 또 섬유질이 적은 식단 위주의 식습관은 용종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반면에 아스피린이나 소염제, 칼슘이 풍부한 식사 등의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두 번째는 나이이다. 용종은 40세 이하에서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50세 이상의 환자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장 검사는 일반적으로 50대 이후부터 시작하게 된다.

세 번째는 가족력과 유전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는 대장 검사를 50세 이전부터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가족성생종폴립증이라고 불리는 유전질환은 대장에 수많은 용종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경우 20-30대에도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장암의

가족력이 높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권하고 있다.

대장암은 미국 내 암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전체의 14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양성 용종의 일종인 생종폴립증 크기가 큰 것은 그대로 두면 악성으로 변할 수 있다.

용종을 미리 진단해서 제거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장 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정기 검진 방법과 시기는 언제일까?

대장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 흔히 실시하는 방법은 대변 잠혈 검사와 직장경 및 대장경 검사가 가장 많이 쓰인다. 또한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서 빈혈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암세포가 대장 내에서 자라게 되면 미세한 출혈을 하게 되는데 출혈의 양이 적을 때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대변 잠혈 검사는 대변에 혈액이 묻어 나오지는지를 판별하는 검사인데 잠혈 검사를 통해서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는 혈액검사와 대장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장 검사는 50세 이후부터 실시해 결과가 따라서 얼마 만에 재검진을 할지 검사주기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대장 검사 결과 대장에 용종이 전혀 없는 경우는 5년-10년 후에 재검사를 받으면 되고 검사상 선종성용종이 발견되면 제거한 후 일반적으로 3년 후에 재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생종폴립은 3년 안에 재발할 가능성이 25-30퍼센트 정도 되고 용종의 숫자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검사 결과와 용종의 숫자 등에 따라 재검사를 결정하게 되고 첫 검사대 장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3-5년 안에 재검사를 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대장 검사를 하게 되면 대장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성인은 정기적으로 대장 검사를 꼭 받도록 하고 대장암 가족력이 있을 때는 50세 이전(40세부터)에 대장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jebis.com</p>	<p>벤넬교회</p> <p>담임목사: 백신종</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령):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새벽기도회: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새벽기도: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p>안다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시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bis.com</p>	<p>앵커리지베를린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www.bethelchurch.org/</p>	<p>엘파소열린문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시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킬린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i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p>	<p>아리조나 기도원 매매</p> <p>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p> <p>· 대지 7.3에이커 · 건물 3동 과 예배실 · 피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p> <p>문의: 623-326-5532</p>	

3. 사역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배우라

1) 피아노 반주

요즘 큰 교회에서는 피아노 반주자로 대부분 전문인들을 채용하고 있어서 사모님의 피아노 반주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줄 안다. 필자의 남편이 처음 한 인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길 때 주일 예배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 반주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수요예배는 그 학생이 공부에 바빠서 반주를 하지 못했다. 다행히 남편 목사가 반주를 할 수 있어 찬송가를 부를 때는 강단에서 내려와 피아노 반주를 하고 다시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한 후 또 내려와 반주를 했는데 보기

바쁜 목사의 기사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주일날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 갈 때 남편 목사의 기사 역할을 해드렸다. 말씀을 증거 하실 목사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갖도록 하며 복잡한 운전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 컴퓨터

필자가 풀러신학교에서 졸업 논문을 쓸 당시 필자의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하고 물어왔다. 그래서 "못 한다"라고 대답했더니 당장 컴퓨터부터 배우라고 하면서 몇 주만 배우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4) 상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익히라

제 12장 '사모와 상담' 참고

5) 책을 많이 읽으라
어떤 책도 성경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두 가지를 다 할 시간이 없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나 잠깐 읽을 시간이 있다면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6) 요리
목회자 사모가 요리를 맛있게 잘하면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34)



이희숙 사모

에 민망했다

그때 필자는 '내가 목사 사모가 될 줄 알았다면 약학 대신 차라리 피아노 전공을 했으면 좋았을 걸'하며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피아노 레슨을 받았다. 그러나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쉬운 찬송가를 골라 미리 연습하고 그 리스트를 남편 목사에게 주어 그 안에서만 찬송을 부르게 하였다.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사모가 피아노 반주를 할 줄 알면 새벽기도회나 오전 성경공부 시간에 반주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나 반주자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니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른다. 가능하다면 꼭 배우면 된다.

2) 운전면허는 기본이다.

사모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모가 운전을 못해서 어떤 모임이나 예배에 참석할 경우에 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한다면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모는 때로는

여자는 나이가 66세가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당신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늘 생각을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라. '내 일이 없을 것같이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끊임없이 배우라'고 한 누군가의 말처럼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배우면 다 도움이 된다.

고 격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컴퓨터를 배운 후에 논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필자는 '왜 진작 안 배웠나?'하는 후회가 생겼다.

목회 사역을 할 때는 교회의 비서가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강의 노트며 필요한 자료들을 다 입력해 주니까 컴퓨터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앉아서 후회하는 대신 곧바로 배우기 시작했다. 정말 늦게나마 컴퓨터를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므로 모든 목회 정보도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어 목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사모들에게 컴퓨터를 꼭 배우라고 권면한다.

굉장히 인기가 좋다. 교회에서 먹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가? 요리는 절대 어렵지 않다.

필자는 전혀 요리를 못하는 사모였는데 남편 목사가 무조건 "You are #1 Cook" 하며 식사 후에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들도 아빠를 따라 "Mommy are #1 Cook"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점에 가서 요리책을 몇권 사다가 요리 공부를 하면서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모님은 요리도 잘 하신다"라는 성도들의 칭찬까지 받았다. 무엇이든지 마음먹고 소원을 가지고 노력하면 된다.

hslee39@sbcglobal.net

(14면에서 계속)

이 책을 삼시간에 읽어 내리며 나는 잠시나마 그녀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하였다. 그것은 분명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받은 것임이 틀림없다. 내가 고민하였던 문제들, 내가 괴로워했던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같은 소그룹 친한 자매처럼 사랑을 담아 이야기 해 주는 것 같았다.

며칠 전 작은 엄마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사람이 여호와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예레미야애가 3:26).

나는 작은 엄마에게도 주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바쁘게 내달리던 삶 속에서 주님을 멀리했지만, 이제 곧 주님의 얼굴을 보을

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인 것이다. 마지막 고통 속에서 그녀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지막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했다던 그녀의 고백처럼 나도 주님을, 나의 아버지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기를 결단했다.

오래전에 사모님과 함께 성경공부를 할 때, 사모님께서 내게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셨다. "지금 당장 죽어 주님을 보게

된다면 첫 마디로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나는 천국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해야 하나, 아니면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이야기하던 것, 마저 할까요?'라고 할 거예요."

맛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크리스천이라면 주님께 그렇게 첫 마디를 내뱉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꼭 그녀가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만 같다. 주님의 품에 행복하게 안기어서 말이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부름받은 대로 충성하라(고전7:16-19)찬380장

개인의 구원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때문에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부르심 받은 거기에 할 일은 무엇이여야 합니까? 첫째, 개인 구원 위주의 삶을 따르라고 했습니다(16). 부부 한쪽이 먼저 구원받음으로 다른 쪽이 구원받게 하는 섭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긴장으로 거기에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각자의 부르심을 중심해야 합니다(17).

하나님이 개인을 부를 때 구원과 그 삶이 시작되기에 각자 형편을 존중하며 거기에 주님의 영광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개인에게 지혜롭게 적용하는 일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자는 자유하는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18-19).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계명을 따르면 됩니다.

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전7:20-24)찬456장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사는데에 관한 문제를 사도는 개인 신분을 중심으로 하라(20)고 가르칩니다. 첫째, 종이였을 때 부름 받으면 종의 신분으로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21). 먼저 주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섬겨야 하며, 만일 자유가 주어진다면 더 나은 일을 위해 자유라 하고 말합니다. 복음은 현실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둘

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됩니다(22).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아갈 길입니다. 셋째,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꿈을 가지되 현실의 삶에 맞게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수 독신의 은사(고전7:25-36)찬287장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독신의 삶을 선호하는 유혹이 많은 때 사도는 독신생활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도의 권면은 첫째, 환난을 인해 독신이 더 좋다고 가르칩니다(25-26).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을 각오하라고 가르칩니다(27-28). 둘이 한 몸을 이루 사는 가족관계로 연합의 즐거움을 가지나 수시로 고난이 일어

나는 것은 서로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부생활을 통해서도 그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로 살아가야 합니다(29-31). 사도는 이 양면을 더 감안해 결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나 항상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내세지향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 창조질서를 존중하라(고전7:32-36)찬78장

창조질서를 무시하려 하는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창조질서를 존중하는 가정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경건위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34절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수고와 창조질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사도는 주의 일을 위주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34). 개인의 경건은 중요하게 다루는 까닭은 주의 일에 쓰임 받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에 의와 인과 신의 성품이 표현돼

야합니다(마23:23). 셋째, 지각을 사용함으로 온전하게 주를 섬기게 하려하였습니다(35). 창조질서인 온전한 결혼생활은 구속의 질서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길이기도 중요 합니다. 결혼생활에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된 생활을 배울 때 온전한 구속, 새 사람의 성품, 거룩과 진리와 의의 성품으로 변화돼 언약생활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금 몸으로 돌릴 영광(고전7:37-40) 찬381장

사도는 과부와 홀아비가 고독을 극복할 지침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첫째, 사별의 경우 결혼해도 좋으나 고독을 이길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권합니다(39). 이것은 인간의 약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세상문화 속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한 수단으로서 이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복됩니다. 둘째,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그 땅 지분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38). 이것을 모든 방면에 주님 중심한 삶을 온전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40). 사도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의의 범기로 드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목표로 살아갑시다.

토 덕을 세우는 교회생활(고전8:1-9)찬236장

사도는 우상제물에 대한 신자의 태도를 아래와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 진리에 서기 위해 우상제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1).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우상제물에 참여함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것처럼 교회는 이런 일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그 어떤 권위에 대한 굴복행위도 우상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둘째, 덕을 세우기 위해 지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2-3). 베힌부1:5-6의 말씀처럼 교회는 덕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과 인간자랑은 영적성장이 중단된 증거입니다. 셋째, 자유하나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길입니다(9). 살아있는 교회는 선한 양심의 기준을 따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East Asi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fields including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information.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담임목사 청빙

아래와 같이 공석중인 뉴욕 베데스다 교회 한어 회중 담임 목사를 모십니다.

- 1. 자격 요건 - 신학 대학원 (M. Div.)을 졸업하신 분. - 목회 경력 5년이상 (부목사 경력포함) -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교단 Church of God (tennessee)에 가입하실수 있는분
2. 기본 제출 서류 1) 본인 및 사모 이력서와 6개월이내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3) 목회관 4) 최근 6개월내의 설교 file (2개 이상) 5) 최종 학력 기준으로 졸업 증명서 6) 소속 교단 발행 목사 안수 증명서 7) 추천서 2부(목회자), 추천인의 e mail 명기 8) 직무 수행을 위한 주치의 건강 소견서 9) 영주권이상, 여권 copy
3. 기타 서류 1) 목회자 대우 수락서 (후후 제출) 2) 공동의회 승인을 위한 약정서
4. 일 정 마감은 2018년 3월 말까지

모든 서류는 nybcoffice@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서류 받는대로 자세한 교회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뉴욕 베데스다 교회

청빙 위원장 이의창 장로 cell 646 400 1252 서기 박환 장로 cell 917 742 7432 4239 208th st, Bayside, NY, 11361

여섯째로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로 인한 감동을 얻도록 하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행동의 변화이다. 교육훈련에 있어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행동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곧 지식이다. 아무리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가장 먼저 관계된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많은 지식을 듣고 경험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나에게 남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모든 지식을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기억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의미 있는 지식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들어도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잊어버리지만 의미 있는 것은 기억한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지식이다.

경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든 경험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경험은 다 기억한다. 첫사랑에 실패한 경험을 잊어버린 사람을 보았는가? 왜 이렇게 오래 기억하는가? 그것은 곧 충격 때문이다. 충격적인 지식, 충격적인 경험은 사람의 뇌리에 오래 기억된다.

교육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의 가슴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지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받는 지식이 각자에게 감동 곧 충격으로 와 닿아야 한다. 아울러 그 지식을 배우는 학습경험이 충격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지식이 오래 남고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감동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교육방법론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강의와 매스미디어가 곧 그것이다. 설교는 교육방법론 상으로는 강의에 속한다.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다보면 "그렇지 그거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내용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감동의 정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그 시간에 제공된 지식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교육훈련하면서 지도자는 짧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들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매스미디어 그것은 감동을 일으키는 데

는 최고의 도구이다. 연속극을 보다가 우리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 그들은 분명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동을 위해서 필요와 주제에 따라 비디오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곧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스스로 말하고 기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면서 감동도 되고 동감도 하는 내용, 또 좀 더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는 내용

운 지식에 대한 반응을 표현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강의를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 들은 것을 내가 다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지 잘 알고 있다. 말하거나 기록하는 일은 머리속에 들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마치 구슬을 꿰듯이 정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정보들은 각각 종류

람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정리하도록 도와 주고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쓰는 과정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훈련에서 리더가 가능한 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리더는 가능한 질문을 많이 하고 훈련자들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유도하므로 그들의 생각을 자극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너무 많이 알아서 말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몰라서, 다시 말한다면 관계된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을 하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 그가 모든 것을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가능한 훈련받는 자들이 말이나 글로 배우는, 느낀 바를 정확히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교육방법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단일 뿐이다. 어떤 방법론도 모든 상황에 다 어울리는 왕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언제나 원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 다른 가능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사역자에게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법을 익히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가 하는 교육훈련은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좀 더 균형 잡힌 교육 훈련을 시키려면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훈련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 가르칠 터인데 그들이 교역자를 통해서 단선적 교육접근 만을 경험하고 마치 그것이 교육접근에 있어서 유일한 것인양 고집한다면 그들이 속한 그룹에는 다이내믹한 학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론이라도 한 가지를 계속 사용했을 시 지루함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imanhy@hanmail.net

왜 내게 배우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하)



김만형 목사 (Ph.D,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의 중요목표 위한 행동 변화위해 기초자료 필요 강의와 매스미디어 등 충격적인 학습경험으로 지식 얻도록

일곱째로 학습자가 변화된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말로, 혹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라

행동의 변화가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행동의 변화를 위해

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본다 생각해 보라. 많은 지식들이 머리속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그것을 지금 바로 말로 표현하여 대답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뭔가 많이 들은 것 같은 데

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마치 컴퓨터가 분류하고자 하는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나누는(sorting)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한 번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표현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모두다 그 때 이렇게 말을

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마치 컴퓨터가 분류하고자 하는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나누는(sorting)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한 번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표현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모두다 그 때 이렇게 말을

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마치 컴퓨터가 분류하고자 하는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나누는(sorting) 것과 같은 방식이다.

우선 지식이 오래 남아서 영향을 미치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했는데 문제는 그 지식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나 이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얻고 지식을 갖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다.

교회에 나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만큼 살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감동을 받으며 지식을 갖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막상 말로 하려니와 표현이 안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들은 많은 정보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구슬과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산만한 지식들이 지금 현재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들려져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될 수 있는 지식의 조각조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산만한 지식들을 마치 구슬을 꿰듯이 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또 배

웠으면 좋았을 것을, 그 때 글을 이렇게 썼으면 더 나아갈 것을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말하고 쓰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발전되고 정리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표현되는 생각은 우리의 머리속에 혹은 가슴속에 정리되어 남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이해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이해가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지식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인해서 예수님은 그의 가르치는 사역에서 늘 대화법을 이용하셨다. 사

(13면에서 계속)

오늘날 일부 교회 가운데 교회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성도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까지 희생하며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학업과 직장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예배와 모임들로 인하여 정작 가족끼리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어떤 가족은 4식구가 각각 다른 교회에 나가기도 한다. 한 교회 출석해도 각각 부서가 다르다. 이러면 가족끼리 만나기도 어렵고 만난다 해도 신앙의 내용과 색깔이 다르

다. 이는 존 듀이(John Dewey) 교육철학 영향이 크다. 그는 연령별 행동 발달에 따라 구별해서 전문성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일리가 있으면서도 완전한 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선생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협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의 가정들이 세워져가도록 구조와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은 한 교회에 다니도록 안내 해야 하며 또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가정에서 즐거운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목회적 지도가 요구된다.

맺음 말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이민사회는 가정 속에 두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부모의 1세 문화와 자녀들의 2세 문화이다. 언어는 어느 정도 통한다고 하지만 1세와 2세들의 갭(gap)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가정을 살릴 수 없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고구조

(thinking structure)가 다르다는 것이다. 세대 차이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한인교회는 땅끝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저 적당히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어둠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막을 수 없다. 저들에게 말씀전수의 장이 지금의 교회 주일학교와 더불어 가정에서 신앙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교회교육은 지식위주가 된다면 가정에서는 코이노니아 위주가

되어야 한다.

아무튼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 유대인처럼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선교적 패러다임이 시도되지 않는 한 우리 기독교는 계속 힘을 잃어갈 것이다. 가장 확실한 길을 뒤로 하고 불확실하며 우회하는 길을 고집하는 것은 지혜롭다 할 수 없다. 가정이 수직선교의 산실이다.

jrson007@hanmail.net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